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6년 2월

석사학위 논문

대학생의 학사경고 극복경험에 대한
개념도 연구 : 성별에 따른 차이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송 수 진

대학생의 학사경고 극복경험에 대한 개념도 연구 : 성별에 따른 차이

A Concept Mapping on the Experiences of Students Being on
and Overcoming Academic Probation : The Analysis of Gender
Differences.

2016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송 수 진

대학생의 학사경고 극복경험에 대한 개념도 연구 : 성별에 따른 차이

지도교수 권 해 수

이 논문을 상담심리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송 수 진

송수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u>권 해 수 (인)</u>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u>김 택 호 (인)</u>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u>정 승 아 (인)</u>

2015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1
B. 연구문제	5
II. 이론적 배경	
A. 학사경고	6
1. 학사경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6
2. 학사경고 극복 상담프로그램	7
3. 학사경고 극복 과정.....	8
B. 학업에 따른 남녀의 특성	9
C. 개념도 연구	10
III. 연구 방법	
A. 연구 참여자	16
1. 아이디어 진술문 생성 과정 참여자	16
2. 진술문 통합과정 참여자	17
3. 아이디어 진술문 분류 및 평정과정 참여자	17
B. 연구 절차	18
IV. 연구 결과	21

A. 차원 및 군집 수와 명	21
1. 남자대학생이 지각한 학사경고극복요인에 대한 개념도	22
2.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학사경고극복요인에 대한 개념도	28
B. 대학생이 인식하는 학사경고극복요인의 중요도	35
V. 논 의	37
참고문헌	43
부록	46

표 목 차

<표 1> 아이디어 진술문 생성 과정 참여자 기본정보	17
<표 2> 학사경고극복과정 요인에 관한 초점질문	20
<표 3> 남자대학생들이 지각한 학사경고극복요인 군집과 핵심문장.....	24
<표 4> 여자대학생들이 지각한 학사경고극복요인 군집과 핵심문장.....	31
<표 5> 남자대학생이 인식하는 학사경고극복요인의 중요도.....	35
<표 6> 여자대학생이 인식하는 학사경고극복요인의 중요도.....	36

그 림 목 차

<그림 1> 남자대학생들이 지각한 학사경고극복요인 개념도..... 24
<그림 2> 여자대학생들이 지각한 학사경고극복요인 개념도..... 31

초 록 (ABSTRACT)

대학생의 학사경고 극복경험에 대한 개념도 연구 : 성별에 따른 차이

본 연구에서는 학사경고를 경험한 학생들이 그 경험과 원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 이후에 학사경고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개념도 방법론(concept mapping)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남녀 간의 서로 다른 사회적 발달경험에서 비롯한 학사경고의 극복요인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학사경고극복과정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대상의 이해 폭을 넓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학생들이 학사경고 원인과 극복을 촉진하는 경험과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여학생들이 학사경고 원인과 극복을 촉진하는 경험과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성별에 따른 학사경고원인과 극복과정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는가?

연구 참여자는 C대학교 학사경고극복경험이 있는 남자대학생 7명, 여자대학생 8명 등 총 15명 이었다. 이들의 학사경고극복요인을 산출하기 위해 초점질문을 만들었고, 남녀 각각 총 100개의 최종 진술문이 만들어졌다. 최종 진술문을 연구 참여자의 분류 및 평정 과정을 거쳐 집단 유사성 행렬표(GMS)를 만들고 다차원척도법(ALSCAL)과 위계적 군집분석(Ward의 방법)을 실시하여 개념도를 작성하였다. 학사경고극복요인의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해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여 각 군집과 문항의 중요도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 결과 남녀 각각 5개의 군집과 2개의 차원으로 구성된 개념도를 완성하였다. 남자대학생의 경우 5개의 군집(군집1: 외부자극으로 인한 동기유발, 군집2: 미래에 대한 불안 및 현실 인식, 군집3: 능동적 자기관리행동, 군집4: 사회적 지지자원 활

용, 군집5: 목표수립 및 실행의지와 책임감)과 2개의 차원(개인차원 - 관계차원, 인지차원 - 행동차원)으로 구성된 개념도를 완성하였다. 여자 대학생의 경우 5개의 군집(군집1: 내·외적 자극으로 인한 동기 유발, 군집2: 사회적 지지자원 및 심리적 안정감, 군집3: 성취경험 및 자기관리행동, 군집4: 미래에 대한 불안감, 군집5: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후회와 깨달음)과 2개의 차원(긍정자극 - 부정자극, 개인차원 - 관계차원)으로 구성된 개념도를 완성하였다.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생의 학사경고극복경험의 중요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남자 대학생은 외부자극으로 인한 동기유발이 가장 높은 중요도(3.70)를 보인 반면, 여자 대학생은 사회적 지지자원 및 심리적 안정감이 가장 높은 중요도(3.90)를 보였다.

본 연구는 개념도 방법론을 사용하여 학사경고극복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시각에 근거한 자료를 추출하고, 이들이 지각하는 학사경고극복요인의 개념적 구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이에 본 연구 결과는 대학 내 학사경고자의 극복요인을 이해하는데 보다 타당하고 생생한 기초 자료로, 학사경고자 상담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 활용에 유용할 것이다.

* 제시어: 학사경고, 개념도 연구, 학업부진극복, 성별

A Concept Mapping on the Experiences of Students Being on and Overcoming Academic Probation : The Analysis of Gender Differen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college students are academic probation, how you manage by concept analysis method to bury the study. I checked out the differences in developmental situation on gender, and integrated up in a way to overcome his academic probation would suggest to you.

Research questions set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experience in overcoming the current scholastic warning of male college students? Second, What is the experience in overcoming the current scholastic warning of female college students? Third, According to sex a scholastic warning he get over there ar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experience?

To implement this survey, 15 subjects from C University freshmen have written a total of 100 final statements in the semi-structured questionnaire and by their brainstorming.

Those data have gone through the classification and evaluation so that the group similarity matrix has been created together with a concept mapping by the multidimensional scale analysis and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To investigate the extent of importance of counseling needs, five-point Likert scale rating has been applied to each group and question.

The result of male college students have shown that five different clusters (cluster 1: Due to irritation and motivation, Cluster 2: Reality anxiety, and awareness about the future, cluster 3: Active magnetic control action, Cluster 4:Social support employee utilization, cluster 5: Target development and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nd two dimensions (individual-Relationship sectors , Cognitive-Behavior sectors) have been shown through concept-mapping. The result

of female college students have shown that five different clusters (cluster 1: Internal and external motivation due to stimulus, Cluster 2: Social support personnel and psychological stability, cluster 3: Administrative activity his experience and accomplishment, Cluster 4: Anxiety about the future, cluster 5: School maladjusted regret and due to realization) and two dimensions (Positive-negative stimulus , individual-Relationship sectors) have been shown through concept-mapping.

Gaps in the importance of male college students and a college girl appeared. A male college students are due to irritation and motivation is among the highest(3.70). But the female university students of achieving the highest sense of psychological stability and social support(3.90).

This study, by the use of concept mapping, has extracted data based on the vision of Academic probation, get over a college student experience and displayed visually the conceptual structure of needs for counselling perceived by academic probation. Thus, the result will be used to understand the needs for counseling of university academic probation and be utilized to apply as a basis reasonable and realistic data, as well as to provide counseling services and basic data for program development.

* Key World: academic probation, concept mapping, at-risk students, gender

I.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대학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립하고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며,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Brooks & DuBois, 1995)로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여 다양한 역할을 경험하고 사회인으로서 준비 작업을 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현실 상 대학 입시에 맞춘 교육으로 인해 자신을 돌아보고 자아를 확립하는 등의 발달과업이 수행되지 않은 채 대학을 입학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학생들이 대 학생들의 자율성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며 자아정체감에 혼란을 가지기도 한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은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다양한 문제 상황들(학업문제, 대인관계 문제, 취업 문제)로 인해 낮은 학업성취, 대인관계 문제,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 심리적 · 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김나미, 김신섭, 2013). 더 나아가 이런 어려움들은 학업중단이나 학업 손실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장애경, 양지웅, 2013).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통계자료(www.moe.go.kr)에 의하면,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71%로, 10명 중 7명의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의 수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과거와 달리 학업우수학생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업성취 수준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 내에 학업저성취를 경험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대학 내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학사 경고 및 학업부진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학생들은 높은 스트레스와 우울 · 불안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으며, 이후 적응과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므로(이수진, 2011) 학업 부진 및 학사경고자들은 대학 졸업 후 진로와 취업 문제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최근 2014년 대학정보 고시센터(www.academyinfo.go.kr)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학교에서 6.4% 정도의 학생들이 학사경고를 포함한 다양한 이유로 중도탈락하고 있다는 통계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업부진 학생들을 돕기 위하여 ‘학사경고 제도’를 활용하고 이들이 학업부진을 극복하여 중도탈락 하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사경고 제도 자체는 학업부진을 극복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연구결과(Fletcher & Tokmouline, 2010)가 나왔고 이는 각 대학에서 학업부진을 경험하는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학사경고로 인한 중도탈락률을 줄이기 위한 연구가 중요하게 다뤄줘야 하는 이유는 개인적 측면에서는 교육경력의 단절을 의미하여 개인의 자아성장에 부정적 측면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 교육기관 및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재원의 상실로 인하여 대학기관의 존폐를 위협하고 질적 내실화를 저해하는 요소(김수연, 2007)이며 이는 국가의 인재양성이라는 대학교육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에서는 학사경고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들을 돕기 위한 지원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학사경고와 관련한 전국적인 통계결과나 조사결과를 찾아보기 매우 어렵고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들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동안 학사경고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첫째로 학습부진의 원인을 파악하고 성적우수집단과 비교하여 학사경고자의 특성을 찾는 연구, 둘째로 학사경고자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마지막으로 학사경고극복 과정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

첫째로, 학사경고의 원인과 그들의 특성을 찾는 연구들(강순화 외, 2000; 조경원 외, 2000; 김재환 외, 1986; 한덕웅 외, 2000)은 주로 양적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대부분 학사경고집단을 학업우수집단과 비교 분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학사경고의 요인을 개인내적요인과 대학환경요인 등 각 연구에 따라서 분류하는 기준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주로 국내 선행된 연구들에 의하면 대학과 전공에 대한 기대 불일치, 환경에의 부적응, 대학생활 목표 및 학업동기의 부재, 학습방법의 부족, 유용한 대인관계 부족, 시간 관리의 어려움 등이 성적우수집단에 비해 학사경고집단이 가지고 있는 원인이라고 밝혔다.

둘째로, 학사경고자를 비롯하여 학습부진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신성만, 김정훈, 2012; 이종연, 김복미, 장은주, 2013; 김나미, 김효원, 박완성, 2014; 배상환, 2014)들이 진행되었다. 국내외 학사경고자 원인을 찾는 연구에 의하면 주로 국외는 학업능력 및 기술 부족, 인종, 사회·경제적 지위, 심리적 문제, 대학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다고 보고(Sage, 2010; Hsieh, et al., 2007)되는 반면, 국내의 연구에서는 학사경고의 원인을 주로 학습동기, 환경적응, 자기조절의 부재, 사회적 지지망 부족 등과 같은 심리사회적인 원인을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학사경고자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에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학습동기, 자기효능감, 사회적 관심 및 희망 등 주로 학생들의 개인내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한 목적은 학사경고자의 결핍요소 향상시켜 그들의 심리적 안녕감과 대학생활적응을 돕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에서는 학사경고자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들이 학습동기, 자기효능감, 스트레스대처 및 자기결정성의 유의미한 향상을 했다고 보고(주영아 외 2013; 김나미, 김효원, 박완성, 2014)하였으나 실질적인 학사경고극복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사경고자의 학사경고극복과 학교적응과정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주영아, 김영혜, 원수경, 2012; 장애경, 양지용, 2013; 김명찬, 2013). 단순히 양적연구방법으로 학사경고자의 요인을 찾는 연구보다는 학사경고라는 학업적 위기 경험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접근하려는 연구가 시도되었다. 주로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몇몇 질적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각 대학에서 학사경고를 왜 받고, 어떻게 극복하여 대학생활에 적응하였는지 그들의 관점에서 학사경고극복 경로를 보고자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사경고라는 학업적 위기에 대한 경험을 살펴본 질적 연구들은 대다수가 학사경고자들의 위기경험, 극복과정,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요인을 찾고자 노력을 하였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학사경고와 관련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학 내 학사경고자의 비율과 이로 인한 중도탈락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학사경고자의 특성과 원인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변인을 충분히 탐색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 학사경고자의 특성 및 원인을 조사한 초기 연구들은 학사경고자와 학업 우수생들의 특성을 단순 비교한 결과들이었다(강순화 외, 2000; 조경원 외, 2000; 김

재환 외, 1986; 한덕웅 외, 2000). 이러한 단순비교로 실제 학사경고자에 대한 독특한 특성을 찾아내기보다는 학업우수자에 비해 학사경고자들이 가진 결핍된 특성만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또한 원인에 관한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학사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보호요인들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학사경고자 지원프로그램의 개발내용은 대부분이 그들의 결핍된 요소를 보완하는 수준에 그쳤다. 예를 들면 학사경고자는 우수학생들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부족하고, 높은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망이 부족하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러한 개인내적요인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된 개인 내적 요인들이 어떻게 성적향상에 기여했는지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특히 대부분 학사경고의 원인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양적연구들은 대상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설명하고 일반화 하려하기 때문에 연구대상에 대한 관심은 내면적인 것보다 외연적인 현상을 규명하는데 국한된다. 그러므로 그동안 학사경고자의 요인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들이 되어왔지만 연구의 결과를 수치화하는 과정이 오히려 행위의 의도나 의미를 사장시킬 수 있고, 동일한 연구결과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가 도출되기까지의 맥락이 다를 수 있음을 간과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학사경고자와 관련한 연구는 대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단순히 가설을 검증하는 양적연구보다 심층적으로 대상의 심리사회적 경험을 볼 수 있는 질적 연구가 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학사경고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학사경고극복과정을 살펴본 연구(장애경, 양지웅, 2013; 주영아, 김영혜, 원수경, 2012)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행 되어온 질적 연구는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환경이 국내 일반적인 대학교 학사경고자들의 현상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질적 연구의 특성 상 연구대상자가 지각한 학사경고의 원인과 극복과정에 관한 지각이 연구자의 신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장애경과 양지웅(2013)의 학사경고 경험과 극복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에서는 국내 과학기술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연구대상자가 소속된 대학은 대학에서 정한 최소한의 학업 기준만 만족하면 장학금을 제공하며, 기숙사에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대학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학사경고 요인과 극복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점이 일반적인 대학환경

과 다를 수 있다. 또한 그동안 학사경고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학업위기와 극복에 관한 모든 질적연구(장애경, 양지웅, 2013; 주영아, 김영혜, 원수경, 2012; 김명찬, 2013) 들은 학사경고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경험 내용과 관점을 연구자가 의미 분석하여 재조직화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지각이 반영될 가능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이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은 어릴 적부터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각기 다른 성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성역할에 대한 인식은 자기개념, 자아정체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진로발달에도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선행되어 온 연구들을 보면 남녀의 학업스트레스 요인과 대처방식에서 유의미한 차이들이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현(2015)의 연구에 따르면 여학생은 주로 대인관계에서, 남학생은 학교생활 및 진로문제에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스트레스 지각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 다른 선행연구(김미경 외, 2012)에서도 여자 청소년은 학업스트레스, 우울 및 불안, 부모 및 친구와의 애착요인이, 남자 청소년은 자아통제와 자기신뢰감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및 관련 요인의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다양한 사회 환경적 요인들이 남녀에게 다른 가치의 발달을 증진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은 여자청소년에게는 관계지향적인 모습을, 남자 청소년에게는 성취지향적인 경향을 더 많이 보여준다는 연구들(Block & Robins, 1993; 이은주, 정익중, 2012, 2012에서 재인용)과 일치한다. 실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연구(박혜진, 한영석, 김명소, 2013)에서도 마찬가지로 남녀의 학업지속요인에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여학생은 ‘대학환경만족’, ‘전공만족’ 요인이 나타났고, 이와 달리 남학생은 ‘교수신뢰’, ‘경제적 어려움’ 등이 의미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과 남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들의 특성이 다르고 이로 인해 학업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가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성별에 따라 학업 위기의 원인과 학사경고를 극복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남녀의 성역할을 비롯한 발달적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각 대학의 특수한 환

경이 일반적인 학사경고자의 학업위기와 극복요인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학사경고자의 원인과 극복요인에 대한 그들의 지각과 경험이 연구자의 주관적인 관점을 통제하는데 객관적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결과가 연구대상자의 관점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세 번째는 학사경고의 원인과 이를 극복하는 방법에서 남녀 간의 다른 사회적 경험과 지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이다. 질적 연구의 특성상 일반화가 어렵고, 학사경고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각각의 특수한 대학의 환경을 다양하게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 기숙사에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준학점만 넘으면 장학금이 지급되는 대학환경의 학사경고자와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대학환경의 학사경고자들은 학사경고라는 경험에 대한 원인과 극복요인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남녀 간의 발달상의 경험과 차이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학사경고극복경로를 탐색하는 것은 학사경고 극복요인에 대한 더 다양한 자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업스트레스를 지각하고 대처하는 방식에서 성별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실제 상담현장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성별에 따른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성별에 따라 학사경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이나 경험에 있어서 남녀 각각의 독특한 특성이 존재함과 동시에 성별을 아우르는 공통적인 요인을 찾아봄으로써 학사경고를 더욱 폭 넓게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학사경고자 상담 및 지원프로그램에서 성별로 인한 독특하게 나타나는 삶의 맥락이 결부된 예방적, 치료적 개입이 요구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사경고 경험과 극복요인에서 남녀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 성별로 인한 다른 경험을 반영한 학사경고자 지원프로그램의 개발과 접근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최종적으로는 학사경고를 예방하여 중도탈락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탐색하기 위해 본 연구는 발견지향적인 연구 자세를 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사경고를 경험한 학생들의 학업적 위기를 극복한 과정에 대해 탐색하기 위해 질적인 방법과 양적인 방법이 결합된 개념도(Concept Mapping)를 사용할 것이다. 개념도는 연구자의 신념에 영향을 받기 보다는 연구 참여자들 자신들의 관점에 근거를 둔 자료를 조직화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Gol & Cook, 2004). 본 연

구는 대학생활에 학사경고라는 학업적 위기상황을 그들이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관해 그들의 관점에서 들여다 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학사경고극복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함으로써 대학에서 학사경고를 받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상담적 개입 방안을 구안하는 데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B.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학사경고를 경험한 학생들이 그 경험과 원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 이후에 학사경고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남녀간의 서로 다른 사회적 발달경험에서 비롯한 학사경고의 원인 및 극복요인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학사경고극복과정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대상의 이해 폭을 넓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학생들이 학사경고 원인과 극복을 촉진하는 경험과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여학생들이 학사경고 원인과 극복을 촉진하는 경험과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성별에 따른 학사경고원인과 극복과정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A. 학사경고

1. 학사경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사경고는 대학에서 최소한의 학업성취 기준을 설정하여 학생들이 그 기준에 성취하도록 독려하고 만약 기준을 만족시키는 데에 실패했을 경우, 학업부진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한 제도이다. 학사경고의 학점기준은 해당 대학 학칙에 의해 규정되며, 일반적으로 평점 평균치 기준보다 낮거나 F학점이 3과목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각 대학에서 학사경고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학사경고로 인해 학생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경험을 하는지 우리나라에서는 연구가 많이 되지 않았고 학사경고에 대한 전국적인 통계나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학사경고자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및 상담적 접근을 위해서는 학사경고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은 매우 중요하다.

국내에 학사경고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초기 연구에서는 학사경고의 원인과 특성을 찾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김재환(1986)의 연구에서는 학사경고자의 특징과 원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학사경고자와 우수학생의 특성을 비교하였고, 연구 결과 학사경고자 집단은 우수집단에 비해 학업동기 및 내적동기가 부족하며 대학생활 적응 및 학습방법에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왔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를 결정하는 변인이 학습자의 고정된 변인이라기보다는 유동성이 가능한 요인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 다른 연구(한덕용, 이경성, 2000)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사경고자의 특성을 대학성적우수학생과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사경고자의 특성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크게 능력, 동기, 환경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적우수학생과 비교하여 학사경고자의 특성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으로 개인의 학습능력(입시사정총점)이 가장 두 집단을 크게 구분하

였고, 그 다음이 자기효능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이 지니는 특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학사경고자만이 지니는 독특한 특성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였다. 학사경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또 다른 연구(조경원 외, 2000)에서는 크게 사회·환경 변인, 학업 변인, 그리고 성격 변인으로 분류하였고 주로 전공에 대한 불만족, 학습동기의 부족, 부정적인 수업태도 등과 같은 요인들이 밝혀졌다. 그 외에도 학사경고자와 관련이 많은 대학생의 학습부진에 대한 연구(권혁재, 2012; 황매향, 2009; 양명희, 2014)에서는 주요 요인으로 대학과 전공에 대한 기대 불일치, 환경에의 부적응, 대학생활 목표 및 학업동기의 부재, 학습방법의 부족, 유용한 대인관계 부족, 시간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사경고자의 원인과 특성을 살펴본 연구들은 학사경고자의 독특한 특성을 찾는 연구가 아니라 우수집단과의 비교를 통한 연구들이 선행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학사경고자의 결핍되고 부족한 측면만 부각시켰고, 학사경고를 경험한 대상이 지각하고 바라본 학사경고의 원인이라고 보기에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학사경고자를 경험한 학생의 관점에서 학사경고의 원인과 이를 어떻게 극복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들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하여 실질적인 상담개입과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학사경고 극복 상담 프로그램

국내 학사경고자를 비롯하여 학습부진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효과검증을 통해 학사경고자를 지원해주는 연구(신성만, 김정훈, 2012; 이종연, 김복미, 장은주, 2013; 김나미, 김효원, 박완성, 2014; 배상확, 2014)들이 진행되었다. 학사경고자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크게 형태측면과 내용측면으로 나뉘는데 우선 학사경고자 지원프로그램의 형태를 살펴보면 크게 1:1의 방법과 소그룹으로 만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1:1의 방법은 학생들의 특정한 요구를 더 반영할 수 있고 그들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이나 생활지도 프로그램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소그룹의 형태로 만나는 방법은 비슷한 어려움을 경험한 학생들과 함께 만나 사회적 지지

를 얻을 수 있고 주로 학습방법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주로 국내 선행되어 온 학사경고자 지원프로그램에는 학사경고자들을 위한 동기강화 집단상담 프로그램(신성만 외, 2012)와 자기탐색 프로그램 개발(이종연 외, 2013), 자기결정성 및 스트레스 대처전략 증진 프로그램(주영아 외, 2013), 회복탄력성프로그램과 동료멘토링의 효과를 본 연구(김나미 외, 2014)들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의 내용들은 기존선행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학습동기, 스트레스 대처,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학습전략 및 방법 등의 내용에 초점을 두었고 이들 프로그램은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에서 찾은 요인들을 프로그램에서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다.

학사경고자들을 위한 동기강화집단상담 프로그램(신성만, 김정훈, 2012)에서는 학사경고자의 요인을 동기의 부족으로 보았다. 특히 이들의 학업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겪는 심리적 곤란을 해결하고 장기적인 삶의 목표를 설정하여 학습을 포함한 삶에 대한 근본적 내부적 동기를 갖도록 돕고자 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학업 저성취 대학생의 자기결정성과 스트레스 대처전략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주영아 외, 2013). 대학생의 학업저성취에 관련한 변인을 찾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학업동기, 스트레스 대처 등이 학업저성취와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Struthers, Perry와 Menec, 2000; DeBwerard, Spielmans, & Julka, 2004; 한덕웅, 이경성, 2000)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학업동기를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프로그램이 연구대상의 자기결정성과 스트레스 대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었음을 밝혔다. 학사경고의 핵심요인을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으로 본 연구도 있었는데 이 연구는 학사경고 대학생들을 위해 동료 멘토링을 활용한 회복탄력성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을 검증하였다(김나미, 김효원, 박완성, 2014). 이 연구에서는 그들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학교에 적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동료 멘토와 멘티들이 2박 3일간 집중합숙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학사경고자들의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회복탄력성의 변화로 효과검증을 하였고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학사경고에 미치는 요인을 단순히 학업우수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그들의 부족한 측면을 살펴보았다는 한계가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이 개발되었으나 효과검증을 통해 실제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학사경고 극복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효과검증까지 함께 살펴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이 프로그램에서 향상시키고자 하는 요인들이 얼마나 그 전에 비해 향상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실제로 학사경고자의 성적의 향상 등은 반영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학사경고자들이 인식한 학사경고의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학사경고극복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학사경고의 요인뿐만 아니라 실제 학사경고를 경험한 학생들이 지각한 학사경고극복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다.

3. 학사경고 극복 과정

초기 학사경고자와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양적연구에 의하여 설문지를 돌리고 그들의 대학생활 실태를 학업우수자와 비교하여 살펴보는 연구들이 선행되었다(김재환 외, 1986; 조경원 외, 2000; 한덕웅 외, 2000). 이러한 양적 연구방법의 연구들은 학사경고자들의 요인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 이들을 대상으로 질적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 많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장애경, 양지웅, 2013; 주영아, 김영혜, 원수경, 2012). 특히 학사경고자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 학사경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극복요인을 탐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효과적인 프로그램 및 개입방향을 맞출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학사경고 원인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비교적 많이 되어있으나 극복요인을 탐색해왔던 연구들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학사경고를 경험했던 학생들의 극복방법을 분석해 보면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정보제공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기가 쉬울 것이다.

이에 장애경과 양지웅(2013)은 대학생의 학사경고 경험과 극복과정에 관한 질적연구를 통해 그들의 심리사회적 경험을 이해하고 학사경고를 극복할 수 있었던 요인들을 찾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학사경고의 원인을 학업동기의 부재, 처음 겪는 학업위기에 대한 대처 부족과 지지기반의 부재 등으로 지각하였고 그들이 학사경고를 받고 난 직후의 심리사회적 경험에는 부모님께 미안함과 자신 스스로에게 실망감

을 표현하였다. 이 연구는 그들의 학사경고극복과정에서 심리사회적 경험을 탐색하고 이해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여대생의 학업성취실패요인과 지속요인에 대해 탐색한 또 다른 연구(주영아, 김영혜, 원수경, 2012)에서는 서울에 소재한 4년제 여자대학교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여대생들이 대학에서 학사경고를 받게 된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지속하게 만드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학사경고 상태에 이르게 된 요인과 이후 학업을 지속시키게 된 요인이 무엇 인지를 탐색하여 향후 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과 이로 인한 중도탈락을 막고자 하였다. 장애경과 양지웅(2013)의 연구와 차이가 있다면, 이 연구에서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사경고극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군경험이라는 변인을 통제하였고, 또한 성공적인 학업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라기보다는 중도탈락을 막는 보호요인을 살펴 보고자 하였고 그러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업지속요인을 살펴보았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또 다른 질적 연구에서는 학업실패를 경험한 서울대학교 학생의 적응과정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 작용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김명찬, 2013). 이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 학업실패를 경험한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 학생이라는 연구대상의 독특함이 연구결과에서도 상당히 반영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서울대 위상에 맞는 진로를 찾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행동이 학업실패를 극복하고 대학생활적응에 작용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기존의 선행되어 온 연구와 같이 단순히 다른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학사경고자의 요인을 찾는 연구보다는 그들이 인식한 학사경고라는 학업적 위기 경험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접근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실제 학사경고자와 관련한 질적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지 않고, 선행연구의 각 대학의 독특한 환경이 학사경고의 원인과 극복요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각 연구대상자의 독특한 경험을 반영할 수는 있으나 이 결과를 다른 일반적인 학사경고자에게 적용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장애경과 양지웅(2013)의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가 기숙사 거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장학금 지급과 관련한 특수한 대학환경이 일반적인 학사경고자의 경험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그 외에도 주영아, 김영혜, 원수경(2012)의 연구에서는 여자대학교라는 특수한 환경이 반영되었고, 김명찬(2013)의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 학생이라는 독특한 경험이 반영되었다. 이렇게 각

각의 다양한 대학환경을 더 많이 반영하는 질적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것은 학사경고의 원인과 극복요인에 대한 통합적인 자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방대학의 학사경고자들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빈약한 학사경고자에 대한 자료를 더 구축할 것이며 특히 극복요인에 관한 연구의 부족한 실정을 반영하여 극복요인을 그들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추후 대학 내 학사경고자 상담 및 접근에 올바른 방향제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B. 학업에 따른 남녀의 특성

학사경고자의 학사경고의 원인과 극복요인에 있어서 남녀의 다른 발달적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업에 관한 남녀의 특성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대체적으로 학업스트레스 요인과 대처방식에서 유의미한 차이들이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의 학업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그리고 내재화·외연화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연구(유창민, 강상경, 김성용, 2014)에서는 이들 관계들이 성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 따르면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학업스트레스가 내재화에 이르는 경로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자청소년이 소극적이고 사회적으로 내재화되어 과잉 통제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불안, 우울, 사회적 위축 등의 증상을 더 많이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남자청소년은 외현화를 더 많이 사용하여 학업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정이나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과소 통제되어 공격성이나 과잉행동 등의 증상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 다른 선행연구(김미경 외, 2012)에서는 성별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및 관련요인의 차이를 본 결과 여자 청소년은 학업스트레스, 우울 및 불안, 부모 및 친구와의 애착요인이, 남자 청소년은 자아통제와 자기신뢰감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양한 사회 환경적 요인들이 남녀에게 다른 가치의 발달을 증진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은 여자청소년에게는 관계지향적인 모습을, 남자 청소년에게는 성취지향적인 경향을 더 많이 보여준다는 연구들(Block & Robins, 1993; 이은주, 정익중, 2012, 2012에서 재인용)과 일치한다. 또 성별에 따른 우울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여학생의 경우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Rueger & Demaray, 2011),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과 남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들의 특성이 다르고 이로 인해 학업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가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박혜진, 한영석, 김명소, 2013)에서는 학업지속을 예측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에 대하여 남녀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 결과 여학생은 남학생과 달리 ‘대학환경만족’, ‘전공만족’ 및 ‘교과과정만족’ 요인이, 남학생의 경우는 여학생과 달리 ‘교수신뢰’, ‘경제적 어려움’ 의미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사경고자들이 학업을 지속하는데 남녀 집단에 따라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성별차이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아직 서로 다른 결과들을 내는 소수의 연구만이 진행되어 있어서, 대체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자료들이 축적될 필요가 있다. 성별에 따른 학업에 관련한 특성들을 살펴본다면 학사경고자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차별적이고 효과적인 방안들을 도출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C. 개념도 분석(concept mapping)

개념도(concept mapping) 방법은 구조화된 개념화 과정의 한 방법으로, 구체적이 현상 이면의 구조를 탐색하고 기술하는 절차이다(Kane & Trochim, 2007). 일반적으로 개념도 방법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사용하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Goodyear, Claiborn, Lichtenberg &

Wampold, 2005). 이러한 개념도 방법의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사고 또는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산출된 아이디어를 종합·편집하여 참여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의미 있게 분류하는데 이것은 특정한 현상과 관계된 대상들이 그 현상에 대한 개념적 구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일련의 과정이다(Kane & Trochim, 2007).

개념도 방법론은 자료의 수집부터 분석 및 해석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들로 이루어진 구조화된 연구 방법으로, 질적인 연구와 양적인 연구 사이에 있으며 이 두 개의 연구 방법을 절충하고 결합하는 도구적 의미를 가진다. 최근 상담학에서는 개념도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개념도 방법이 상담학의 주된 관심 주제인 질적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구조화된 절차를 제공한다는 점과 질적 자료의 분석에 양적인 접근을 결합했기 때문이다.

먼저 기존의 상담 과정과 성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로 상담자 관점에서 이해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상담의 성과를 내담자가 똑같이 지각하지 않을 수 있고, 보다 상담의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관점을 이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Bachelor, 1991; Elliott & James, 1989). 이에 개념도 연구방법은 상담자가 아닌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스스로가 자신의 지각대로 분류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편견이 감소된다고 할 수 있다.(Paulson & Worth, 2002; Paulson et al., 1999).

또한 개념도 방법은 확립된 이론체계가 부족하거나 혹은 사전에 참조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분야의 탐색단계의 연구에도 적합하다고 보았다(Johnsen et al., 2000; Paulson et al., 1999). 개념도 연구 방법의 절차를 보면 진행과정 중 연구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동시에 그들로부터 수집된 질적 자료를 구조화된 방식에 따라 분석하고 양적이 통계방법을 함께 적용한다. 이러한 방식은 연구대상에 대한 경험적, 현상학적 접근을 취하면서도 분석절차가 구조화되고 통계적 방법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탐색을 위해 수집된 질적인 자료를 질적으로 분석하는 접근법과는 다른 강점을 갖는다.

이와 같이 연구자의 편견을 최소화하고 연구대상의 관점에서 그 경험을 이해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념도 방법을 이용하여 학사경고자가 그들의 학사경고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무엇으로 지각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A.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단계별로 아이디어 진술문 생성 과정 참여자, 진술문 통합 과정 참여자, 최종 진술문 분류 및 중요성 평정 참여자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가. 아이디어 진술문 생성 과정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지방 소재 4년제 사립 대학교에서 학사경고(4.5점 만점에 1.65점 이하)를 받은 경험이 있는 대학생으로 남자 대학생 7명, 여자 대학생 8명을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기준은 학사경고를 벗어난 학생으로 벗어난 시점이 1년 이내의 연구 참가자를 선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사경고 이후에 성적을 향상시켜 3.0(B학점) 이상의 점수를 얻은 학생들로 이러한 학사경고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한 이유는 이들의 학사경고 극복 경험이 향후 학사경고를 받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 학사경고를 벗어나는데 영향을 준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에 학사경고를 벗어난 시점이 너무 오래되었을 때 학사경고경험과 벗어나는 과정에 대한 기억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였다.

연구 참가자 선정을 위해서 연구자는 대학 내 원스톱학생상담센터에 학사경고를 벗어난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는 안내문과 동의서를 이메일로 보내주도록 요청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응한 학생들과 합의하여 인터뷰 날짜를 정

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실제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능한 계열이
 나 전공이 골고루 안배가 되도록 하였고 참여자의 인원수는 Kane과 Trochim(2006)
 의 제안을 따랐다. 각 참여자의 기본정보는 <표1>와 같다.

<표1> 아이디어 진술문 생성 과정 참여자 기본정보

성별	연번	이름	단과대학	학년	학사경고학기 성적	이번학기 성적
남자	1	이**	공과대학	2	1.000	3.214
	2	박**	공과대학	4	1.357	3.000
	3	임**	사범대학	3	1.286	2.550
	4	오**	공과대학	2	0.053	3.396
	5	김**	보건과학대학	4	0.750	3.890
	6	정**	전자정보공과대학	2	1.600	3.025
	7	박**	경상대학	2	1.500	3.235
여자	1	정**	사회과학대학	4	1.417	2.500
	2	박**	인문과학대학	3	1.417	3.737
	3	조**	인문과학대학	4	1.556	3.688
	4	송**	외국어대학	4	0	3.087
	5	김**	전자정보공과대학	3	0.714	3.500
	6	박**	인문과학대학	2	1.588	3.842
	7	김**	인문과학대학	3	0	3.067
	8	박**	외국어대학	2	1.625	2.735

나. 진술문 통합과정 참여자

아이디어 진술문 통합 및 편집 과정 참여자는 연구자를 포함하여 총 3명이었다. 3
 명 모두 상담 전공 석사 과정생으로 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서 학사경고자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이들 모두 학사경고자 상담 경험이 있는 석사 과정생으로 구성하였다.

다. 아이디어 진술문 분류 및 평정 과정 참여자

아이디어 진술문 분류 및 중요성 평정과정에는 아이디어 진술문 추출과정에 참여했던 남자대학생 7명, 여자대학생 8명이 모두 참여하였다.

B.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학사경고를 극복한 남녀 대학생의 학사경고 요인과 극복요인들을 개념도(concept mapping) 방법을 통해 알아보았다. 개념도는 특정한 현상에 내재해있는 구조를 탐색하고 기술하기 위한 구조화된 개념화 과정의 한 유형으로, 연구자가 신념에 영향을 받기 보다는 연구 참여자 자신들의 관점에 근거를 둔 자료를 조직화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Gol & Cook, 2004). 개념도 방법을 개발한 Kane과 Trochim(2007)의 개념도 연구과정을 따르며 크게 6단계로 정리하고 있고 이는 브레인스토밍, 진술분석과 통합, 진술 분류, 다차원척도와 군집분석, 지도생성과 자료 도형화 과정을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과정을 근거하여 진행하되 일부 절차를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첫째 단계는 개념도 연구를 위한 준비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초점질문을 도출하고 자료 수집을 위한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을 어떻게 연구에 참여시킬 것인가를 구상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 동의서와 연구 참여자들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대한 구조화된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다음으로, 학사경고자 및 학습부진학생들의 학업성취 및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 문헌들을 검토하고,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표현해낼 초점질문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초점 질문은 다음과 같다. “당신은 학사경고를 받게 된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학사경고를 받았던 때를 회상하며 답변해주시시오. 또한 지금 학사경고를 벗어나는 데 있어서 어떤 노력을 했고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학사경고를 벗어난 뒤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본 연구에서 구체적인 초점 질문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둘째 단계는 아이디어 산출 단계로 연구 참여자들의 내적세계를 보다 풍부히 알아보기 위해 일대일 면담 방식을 적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학사경고를 벗어난 학생들을 일대일로 연락하여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을 전달하고 연구 참여의사를 직접 재확인하였다. 면담 일정을 개인별로 정해서 하였는데, 면담에는 연구자를 비롯하여, 상담관련 전공 석사과정 2명이 함께 참여하였다. 연구 보조자는 상담관련 경험이 있고,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면접을 수행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선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풍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진은 초점질문과 기타 연구진행과 관련해서 자유토론을 하고 질문방향의 전체적인 틀을 잡았다. 그 다음에, 연구보조자 한 명이 먼저 연구 참여자와 만나 면접을 하고, 면접 직후 바로 면접내용을 전사해서 회의를 하고 면접과정에 대한 재검토와 효과적인 질문 방식에 대해 토론 하였다. 면담원칙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연구 참여자가 반응을 하도록 하되, 보다 촉진적인 반응을 돕는 반영이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확인을 위한 추가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였다. 이후에도 각자 면담을 하면서 개인별로 2-3명의 면담내용을 바로 축어록으로 만들어서 검토하도록 하였고,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면담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 하였고, 필요할 시 새로운 지침을 주었다. 면담내용은 모두 녹음되었고 면담시간은 대체적으로 30~40분 정도가 소요되었고, 전체 면담일정을 2015년 5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이루어졌다. 녹음자료는 모두 축어록으로 제시하고, 축어록에서 아이디어 추출을 하였다. 아이디어 추출은 연구자, 연구보조자 2명이 학사경고원인과 극복 요인에 대해 합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모두 3차례 걸친 미팅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남녀 집단 각각의 학사경고원인과 극복 요인의 아이디어를 추출하였다. 각각 집단에서 추출한 전체 아이디어를 분류 가능하도록 종합, 편집하는 과정을 거쳤다. 우선 중복되는 아이디어를 하나로 통합하고, 통합된 아이디어는 원자료 아이디어를 제대로 반영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다음은 통합된 아이디어 표현이 원자료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상담관련 전공 교수 2인에게 자문을 받고, 원자료를 잘 대표한다고 생각하면 2점, 보통이면 1점, 적절하지 않으면 0점을 주게 해서 0점을 받은 것은 다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남녀 집단의 학사경고 극복 요인의 아이디어를 산출하였다.

셋째 단계는 진술문을 구조화하는 단계로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얻은 진술문들을 연구 참여자들이 이해가 되는 방식으로 분류하고 평정하는 과정이었다. 즉 모든 진술문을 카드로 만들어 연구 참여자들에게 분류하게 하고, 각각 자신이 공감하는 정도에 따라 평정을 하도록 하였다. 우선 최종 요인의 진술문을 모두 색카드로 만들어서 연구 참여자들이 쉽게 카드를 분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에게 다시 연락하여 카드 분류에 대한 안내를 하고 연구 협조를 받았다. 카드 분류방법은 ‘하나의 진술문을 하나의 파일로 분류할 수 없고, 진술문 모두를 하나의 파일로 분류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만을 제시하고, 비슷한 카드끼리 묶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아울러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신들이 분류한 파일에 대해 이름을 명명하도록 하고, 각각의 진술문에 대해 자신의 경우 얼마나 공감하는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개념도 분석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참여자 개인별로 분류된 결과는 같은 집단으로 묶여진 진술문에는 1, 다른 집단에 묶여진 진술문들은 0으로 코딩하여 개인별로 유사성 행렬표(Similarity Matrix)를 만들고, 20개의 개인별 유사성 행렬표는 다시 합쳐서 집단유사성 행렬표(GSM: Group Similarity Matrix)로 재구성하였다. 이 집단유사성 행렬표는 SPSS 21.0을 활용해서 다차원 척도법에서 산출된 x, y 좌표 값을 위계적 군집분석의 자료로 만들어서 분석을 하였다. 또한 각각의 진술문이 자신에게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평정한 자료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다섯 번째 단계는 앞선 절차를 통해 작성된 개념도를 해석하는 단계이다. 해석을 위해서는 자료를 수집하는데, 해석할 자료들은 진술문과 군집 목록, 군집지도로 가지고 해석하였다. 군집지도는 군집분석을 통해 진술문들이 어떻게 묶이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여기서는 남녀집단별로 완성된 개념도에 대해 각각의 군집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함으로써, 1차적으로는 학사경고극복과정의 특성을 분석하고, 나아가 성별로 학사경고극복과정을 비교분석하여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개념도 활용 단계로,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지금까지 구조화된 개념화를 학사경고자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하고자 제안하였다.

<표2> 학사경고극복과정 요인 탐색을 위한 초점 질문

질문번호	초점 질문
------	-------

1	학사경고를 받게 된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학사경고를 받고 난 후 자신이 들었던 생각이나 감정은 무엇입니까?
3	학사경고를 벗어나고자 마음먹은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4	학사경고를 받고 난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5	학사경고를 벗어나기 위해 했던 노력들은 무엇입니까?
6	학사경고를 벗어난 후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들을 했습니까?



최종적으로 선택된 초점 질문
당신이 학사경고를 극복하게 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IV. 연구 결과

A. 차원 및 군집의 수와 명명

학사경고를 극복할 수 있었던 요인에 관한 핵심문장은 최종적으로 남자, 여자에서 각각 100개로 정리되었으며, 해석의 용이성 및 다차원 척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주기별로 2차원 해법을 분석기준으로 정하였다. 해석의 용이성은 본 연구가 성별에 따른 학사경고극복요인의 개념적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성별로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며, 다차원 척도 분석 결과는 2차원에서 스트레스 값이 가장 크게 감소하고, 그 이후에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음에 근거한다. 이론적으로 n 개의 관측대상에 대해 $(n-1)$ 개의 차원에서 가장 완벽한 적합이 이루어지나, 3차원 이상의 지각도의 경우 시각적으로 해석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보통 2차원의 해를 구한다. 남자대학생 참여자들의 2차원 해법의 스트레스 값은 .280이었고, 여자대학생 참여자들의 스트레스 값은 .301이었다. 이는 개념도를 위한 다차원 척도법 분석에 적합한

스트레스 값의 평균 범위인 .205에서 .365를 모두 충족하는 것이다(최윤정, 김계현, 2007; Kane & Trochim, 2007). 각 주기별 2차원의 해법에서 사사분면의 공간에 표상되는 진술문들의 내용을 분석하여 차원과 군집을 명명하였으며, 남녀 성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때 군집에 대한 명명은, 각 군집에 포함되는 핵심문장의 의미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1. 남자 대학생들이 지각한 학사경고극복요인에 대한 개념도

남자 대학생들이 지각한 학사경고극복요인 개념도(그림 1)는 ‘개인 차원-관계 차원’의 가로축과 ‘인지 차원-행동 차원’의 세로축을 기준으로 총 5개의 군집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가로축은 학사경고경험 중 남자 대학생들이 지각한 학사경고극복요인과 관련한 자극 영역을 비교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왼쪽에는 개인적 차원에서 내적 동기를 자극한 요인과 관련된 문장들이, 오른쪽에는 관계적 차원에서 자극을 받은 요인과 관련된 진술문들이 분포한다. 예컨대 가로축의 왼쪽에는 자기성찰로 인한 깨달음, 사회적 기대역할에 대한 책임감, 진로 및 취업에 대한 목표설정 등 학사경고에 대한 개인적 차원에서의 자극경험들이 분포한다. 오른쪽에는 가족 및 사회적 지지 자원의 획득, 대외활동을 통한 새로운 관계에서의 자극 등 관계적 차원에서의 자극경험들이 분포한다. 한편 세로축은 학사경고극복 활동의 깊이와 수준을 비교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예컨대 ‘인지 차원’으로 명명한 세로축의 위쪽에는 학사 경고 극복에 대한 표면적인 이해나 학사경고로 인한 열등감 경험 등 소극적 활동수준에서의 문장들이 분포한다. ‘행동 차원’으로 명명한 세로축의 아래쪽에는 학사경고에 대한 인지적 측면에서의 정보가 축적되면서 학사경고를 벗어나기 위해 학습관리 및 정보 습득, 시간 관리를 비롯한 자기통제 행동과 관련된 적극적 활동수준에서의 문장들이 분포한다. 이렇게 구분한 축에 분류된 각 군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군집 1(외부자극으로 인한 동기유발)은 타인과의 비교로 인한 열등감과 학사경고로 인한 좌절 경험이 학사경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음을 반영하는 군집이다. 진술

문을 보면 ‘다른 형제들에 비해 이탈된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서 불안했다’, ‘수도권 대학 다니는 사람들이랑 이야기 하고 내가 한심했다’, ‘성적이 낮아서 경쟁에서 밀렸다’ 와 같이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열등감과 ‘ROTC(학군단)에 지원 자체가 어려웠다’, ‘학점 때문에 못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생겼다’ 등 다양한 제약 등의 인식이 학사경고를 벗어나기 위한 인지적 요인으로 이해된다.

군집 2(미래에 대한 불안 및 현실 인식)는 학사경고에 따른 막막함, 불안, 짜증 등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학사경고를 극복하는 동기유발요인임을 반영하는 군집이다. 진술문을 보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 나를 보면 짜증이 났다’, ‘공부 못하네 소리 듣는 게 자존심이 상했다’, ‘졸업을 못하게 될까봐 불안했다’ 등은 개인 차원에서 학사경고를 극복하기 위한 소극적 활동 수준에서의 인지적 요인으로 이해된다.

군집 3(능동적 자기관리행동)은 학사경고를 벗어나기 위해 시간관리 및 정보 습득 등 적극적 차원에서의 행동적 요인을 반영하는 군집이다. 진술문을 보면 ‘일찍 못나갈 거 아니까 시간표를 오후로 조정했다’, ‘가능성이 큰 것부터 공부하는 게 좋았다’, ‘공부에 방해되는 것들은 다 없애고 카톡도 지웠다’ 와 같이 효율적인 학습활동을 위한 시간 관리와 ‘교양 족보를 얻었다’, ‘학사공지나 일반 공지를 자주 확인했다’, ‘학교사이트를 습관적으로 확인했다’ 등 학사관리 및 적극적인 대학생활에 관한 정보의 습득과 ‘수업시간에 제일 앞자리에 앉았다’, ‘강의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와 같은 수업시간의 적극적인 참여 등은 학사경고를 벗어나기 위한 적극적인 자기관리 행동요인으로 이해된다.

군집 4(사회적 지지자원 활용)은 주변의 관심 및 지지자원의 활용 등 관계적 차원에서의 학사경고극복요인을 반영하는 군집이다. 진술문을 보면 ‘교수님이 관심을 주고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모님과 자주 대화를 하였다’, ‘친한 친구가 많이 지지해줬다’ 와 같이 주변의 관심 및 지지 등 주변의 도움과 ‘친구들로부터 점수 따기 좋은 수업을 추천받았다’,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마음이 편했다’, ‘나를 관리해주는 사람이 생겼다’ 등의 지지자원의 활용은 남자 대학생이 학사경고극복 요인에 사회적 지지자원을 도구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으로 이해된다.

군집 5(목표 수립 및 실행 의지 및 책임감)은 사회구성원으로써의 이상적 자기 역할에 대한 목표 설정과 현실적 자기 모습과의 괴리감으로 인한 불안 및 내적 혼란(갈등)을 반영하는 군집이다. 진술문을 보면 ‘목표가 다시 생겼다’, ‘학생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목표는 한전이나 한수원인데 학점이 3.5정도는 된다’, ‘졸업하고 가고 싶은 기업이 생겼다’ 와 같이 이상적인 사회적 역할에 대한 개인적 차원에서의 인식과 ‘불안이나 초조함이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시험 볼 때 아무것도 모르는 제 자신이 한심했다’, ‘놀면서도 불편했다’, ‘나이가 들수록 책임감이 커졌다’ 등은 미래에 대한 불안 및 자기행동에 대한 내적 갈등이 학사경고를 극복하는 요인으로 이어짐을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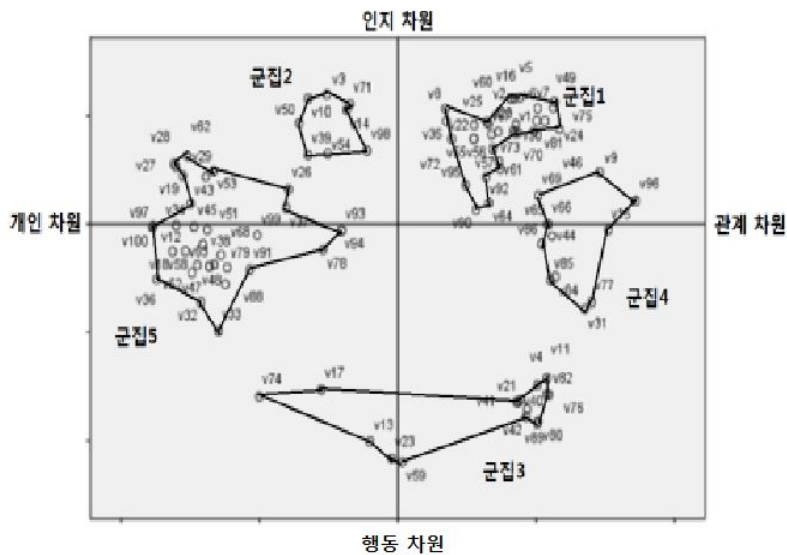


그림1. 남자대학생들이 지각한 학사경고극복요인 개념도

<표 3> 남자대학생들이 지각한 학사경고극복요인 군집과 핵심문장

군집1: 외부자극으로 인한 동기유발 - 중요도 평균 '3.70'		
문항	문장	중요도

20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4.71
1	주변의 기대에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4.29
2	제가 집안에서 다른 형제들에 비해 이탈된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다.	4.29
22	남들이 무시하는 직업을 갖고 싶지 않았다.	4.29
46	어머니랑 아버지가 약해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4.29
5	1번 더 성적경고 받으면 짤린다는 위기감이 컸다.	4.14
16	집안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했다.	4.14
8	동기들이 앞서서 멋져 보이는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 부러웠다.	4.00
92	우리나라에서는 보통고졸보다는 대학졸업자를 선호한다고 생각했다.	4.00
24	부모님께서 억장이 무너지신 모습을 보았다.	3.86
61	나보다 못했던 친구가 대학에 와서 180도 변한 모습을 보았다.	3.86
64	같이 다니는 친구가 하는 것들 보고 자극을 받았다.	3.71
6	친척들이 나한테 내리는 평가로 인해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았다.	3.71
7	부모님이 불쌍하지도 않냐 하는 잔소리를 듣기 싫었다.	3.71
35	수도권 대학 다니는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한심했다.	3.71
56	학점 때문에 제가 못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생겼다.	3.71
73	남들과의 경쟁에서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경쟁에 밀렸다.	3.71
95	주변에 사람들을 보면 각자 자기 갈길 찾는 모습을 보았다.	3.71
75	아빠는 장남으로써 내가 잘 되어야 동생들이 잘된다는 말을 자주했다.	3.57
81	남에게 학사경고 받았다고 하면 학교 안다녔구나 라고 보는 게 싫었다.	3.57
70	학사경고를 탈출하지 못하면 주변을 실망시키는 거 같았다.	3.57
90	안 좋게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되어야지 생각했다.	3.57
25	주변에서 대학졸업장은 있어야 한다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3.43
60	제 주변에 학사경고를 받은 애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창피했다.	3.43
49	등록금 때문에 부모님에게 미안했다.	3.29
57	사촌이 반장학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3.29
72	스스로 잘하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보면서 불안했다.	3.29
67	등록금이 너무 아까웠다.	3.14
83	아버지가 장학금을 받으면 차를 사주겠다고 했다.	3.14
55	ROTC(학군단)을 하는 것도 지원 자체가 어려웠다.	2.86
30	부모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다.	2.57

군집2: 미래에 대한 불안 및 현실 인식 - 중요도 평균 '3.43'

문항	문장	중요도
71	대학 들어와서 이제 공부 못하네 하는 소리 듣는 게 자존심이 상했다.	4.57
14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 나를 보면 짜증이 났다.	4.00
39	대학교 졸업은 최종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3.71

50	나이를 먹을수록 전공 살려서 취업할 생각에 불똥이 떨어졌다.	3.43
54	학점 때문에 국가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3.43
98	졸업을 못하게 될까봐 불안했다.	3.29
3	막상 학교를 안다니면 뭘 해야 할지 막막했다.	2.57
10	교수님을 보면 멋지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2.43

군집3: 능동적 자기관리 행동 - 중요도 평균 '3.46'

문항	문장	중요도
4	일찍 못나갈 거 아니까 시간표를 오후로 조정했다.	4.14
17	수업시간에 집중하면서 수업이 재밌어졌다.	4.00
23	뭐가 나한테 좋을까 찾아보고 싶어서 다양하게 해봤다.	4.00
42	수업시간에 제일 앞자리에 앉았다.	4.00
59	자격증도 알아보고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도 참여했다.	3.71
40	수업시간에 빠질까하는 충동이 생기기도 했지만 꾸역꾸역 앉아 있었다.	3.57
89	강의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3.57
80	공부에 방해되는 것들은 다 없애고 카톡도 다 지웠다.	3.43
11	교양에서 학점을 얻으려고 했고 교양 족보 같은 거 다 얻어서 했다.	3.29
13	좀 더 많이 알고 싶고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다.	3.43
41	학과에서 행사하는 것도 한번 씩 참여했다.	3.29
74	내가 어떤 성향인지 검사를 통해서 파악했던 게 좋았다.	2.29
76	학교 사이트를 습관적으로 많이 확인했다.	3.29
82	학사공지나 일반 공지를 자주 확인했다.	3.29
87	내 일에 집중하지 못 할 거 같아서 여자 친구도 안 사귀었다.	3.29
21	내가 생각하기에 가능성이 큰 것부터 공부 하는 게 좋았다.	2.86

군집4: 사회적 지지자원 활용 - 중요도 평균 '3.17'

문항	문장	중요도
44	대외활동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신선한 자극을 많이 받았다.	4.14
15	나를 관리해주는 사람이 생겼다.	3.57
69	주변에 놀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한심해 보였다.	3.57
96	부모님께서 저를 믿고 지켜봐주셨다.	3.57
77	롤 모델을 보고 많이 배웠다.	3.43
84	주변 친구들로부터 점수 따기 좋은 수업을 추천 받았다.	3.43
66	나에게 어땠는지 물어봐주는 게 나를 인정해주는 느낌이 들었다.	2.86

31	부모님과 자주 대화를 하였다.	2.71
65	친한 친구가 많이 지지해줬다.	2.71
85	친구들이랑 밥도 같이 먹고 공장 시간도 같이 보냈다.	2.71
86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마음이 좀 더 편했다.	2.71
9	교수님이 관심을 주고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2.57
군집5: 목표 수립 및 실행 의지 및 책임감 - 중요도 평균 '3.69'		
문항	문장	중요도
97	성인으로써 그 결과에 대해서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는 게 무서웠다.	4.71
18	목표가 다시 생겼다.	4.57
48	성취감이 더 크게 느껴졌다.	4.57
27	시험 볼 때 아무것도 모르는 제 자신이 한심했다.	4.43
52	제 가치를 올려보고 싶었다.	4.43
62	고등학교때보다 대학 와서 더 안 좋게 변한 모습을 보았다.	4.29
47	열심히 다니니까 나 스스로 좀 뿌듯했다.	4.23
88	졸업하고 가고 싶은 기업이 생겼다.	4.29
79	나는 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다.	4.14
28	내가 뭐하고 살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4.00
37	알바를 하면서 남의 돈 받고 일하는 게 정말 어렵구나 생각했다	4.00
63	과거에 성적이 올랐을 때 굉장히 짜릿했던 경험이 있다.	4.00
78	군대에서 다짐이 좀 생겼던 거 같다.	4.00
100	나이가 들수록 책임감이 커졌다.	4.00
26	알바를 하면서 이일저일 하다 보니 돈의 소중함을 느꼈다.	3.86
12	전공이 나를 재밌었다.	3.86
58	제가 잘해서 전장학금을 받고 싶었다.	3.86
51	성적이 중간 이상은 하고 졸업해야지 나 스스로 만족할 거 같았다.	3.71
38	전공을 살려서 취업해도 좋겠다고 생각이 바뀌었다	3.71
45	목표는 한전이나 한수원인데 학점이 3.5정도는 된다.	3.57
29	제 스스로 떳떳하지 않게 느껴졌다.	3.43
68	책 읽다가 관심이 가는 직업이 생겼다.	3.43
91	복수전공을 하고 싶었다.	3.43
99	공부 안한 나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게 싫었다.	3.29
19	불안이나 초조함이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3.14

33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았다.	3.14
43	놀면서도 불편했다.	3.14
36	지금은 내 학업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3.14
43	놀면서도 불편했다.	3.14
53	미래, 진로, 취업 아직 다 확실한 게 없어서 불안했다.	3.00
34	학생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2.86
93	다양한 알바를 해봐도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이 들었다.	2.57
94	학과전공 살려서 과외알바 했던 게 더 쉬웠구나 싶었다.	2.43
32	교회를 다니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다.	2.29

2. 여자 대학생들이 지각한 학사경고극복요인에 대한 개념도

여자 대학생들이 지각한 학사경고극복요인에 대한 개념도(그림2)는 ‘긍정 자극-부정 자극’의 가로축과 ‘개인차원-관계차원’의 세로축을 기준으로 총 5개의 군집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가로축은 자극의 종류에 따른 정서적 변화를 비교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왼쪽에는 긍정적 자극으로 인한 성장욕구 및 심리적 안정감과 관련된 문장들이, 오른쪽에는 부정 자극으로 인한 열등감 및 부정적 자아상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진술문들이 분포한다. 예컨대 가로축의 왼쪽에는 상담 및 학교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 및 학사경고 극복의 계기를 만들거나 성취경험으로 인한 자신감의 획득 등 학사경고극복요인의 긍정적 자극들이 분포한다. 오른쪽에는 장학금, 좌절경험으로 인한 열등감 및 부정적 자기상에 대한 인식 등 부정 정서를 유발하는 자극과 관련된 요인들이 분포한다. 한편 세로축은 학사경고경험 중 여자 대학생들이 지각한 학사경고극복요인과 관련한 자극 영역을 비교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위쪽에는 개인적 차원에서 내적동기를 자극한 요인과 관련된 문장들이, 아래쪽에는 관계적 차원에서 개인이 영향을 받은 요인과 관련된 진술문들이 분포한다. 예컨대 세로축의 위쪽에는 자기 이해를 통한 수용 및 목표설정, 자기행동에 대한 후회 및 깨달음 등 학사경고에 대한 개인적 차원에서의 자극경험들이 분포한다. 아래쪽에는 타인과의 비교 및 평가, 가족 및 사회적 지지자원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 등 관계적 차원에서의 자극경험들과 관련된 문장들

이 분포한다. 이렇게 구분한 축에 분류된 각 군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군집 1(내·외부 자극으로 인한 동기유발)은 타인과의 비교 및 평가의 중요성과 그로 인한 열등감이 학사경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음을 반영하는 군집이다. 진술문을 보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다’, ‘남들에 비해 내가 늦었고 뒤처지는 것 같이 느껴져서 불안했다’, ‘선배로서 후배보다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다’, ‘남들도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와 같이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평가의 중요성과 ‘주변사람들이 저보고 실망하는 거 보면 더 괴로웠다’, ‘남들 기대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실망했다’ 등 타인의 기대에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의 좌절경험이 학사경고를 벗어나기 위한 관계적 차원에서의 부정적 자극요인으로 이해된다.

군집 2(사회적 지지 자원 및 심리적 안정감)는 주변으로부터의 관심 및 지지로 인한 심리적인 안정감 등 관계적 차원 내에서 긍정 자극 경험이 학사경고를 극복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반영하는 군집이다. 진술문을 보면 ‘친한 친구가 나를 잡아주고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오늘 뭐 배웠는지 물어봐주고 사소하게 관심 줘서 고맙웠다’, ‘내 노력을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생겼다’ 와 같이 가족, 친구 등 주변의 관심 및 지지경험과 ‘상담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위로받고 심리적 안정감이 생겼다’, ‘내가 이해받고 존중받는다느 느낌을 받고 마음이 편안해졌다’, ‘휴학하고 복학하니까 좀 심리적으로나 마음이 괜찮아졌다’ 와 같이 정서적인 안정감의 형성이 여자 대학생들에게 사회적 지지자원의 도구적 활용이 아닌 목적적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적 지지자원으로 인한 심리적 안정감이 학사경고극복요인에 중요한 요소임을 반영한다.

군집 3(성취경험 및 자기관리행동)은 긍정적 경험을 통한 긍정적 자기상의 획득과 그로 인한 개인적 차원에서의 자기관리행동을 반영하는 군집이다. 진술문을 보면 ‘간간한 교수님 수업에서 A를 받아서 성취감이 생겼다’, ‘할 수 있다는 경험을 한 번 하니까 자신감이 생겼다’, ‘관심 있는 수업을 들으니까 수업이 재밌었다’ 와 같은 성취경험과 ‘학사경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계기를 만들었다’, ‘복수전공을 하고 싶었다’, ‘버킷리스트를 적으면서 목표를 정했다’, ‘지각은 하더라도 수업은 안 빠지려고 했다’ 와 같이 개인차원에서의 학업관리 및 이상적 자기상에 대한

목표 행동이 학사경고를 벗어나는 데 필요한 요인임을 나타낸다.

군집 4(미래에 대한 불안감)는 학사경고로 인한 정서적 요인과 낮은 자아개념의 인식이 학사경고극복요인임을 반영하는 군집이다. 진술문을 보면 ‘모르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컸다’, ‘부모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컸다’, ‘취업도 못할 거 같아서 불안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와 같이 학사경고로 인한 부정정서의 유발과 ‘내가 어리석고 한심하게 느껴졌다’, ‘내 자신이 수치스러웠다’, ‘무시당한 거 같은 느낌에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 와 같이 낮은 자아개념의 인식이 여자 대학생들에게 부정자극이 개인적 차원에서 부정적 자기상의 인식이 학사경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인이 됨을 이해한다.

군집 5(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후회와 깨달음)는 학사경고로 인한 불이익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자기 후회와 깨달음을 반영하는 군집이다. 진술문을 보면 ‘공부를 안 해서 열등감이 생겼다는 걸 알았다’, ‘무역학과를 복수전공 하려는데 그 학과의 학점기준에 못 미쳤다’ 와 같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그로 인한 부정 자극의 경험이 개인적 차원에서의 깨달음이 학사경고 극복요인에 도움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군집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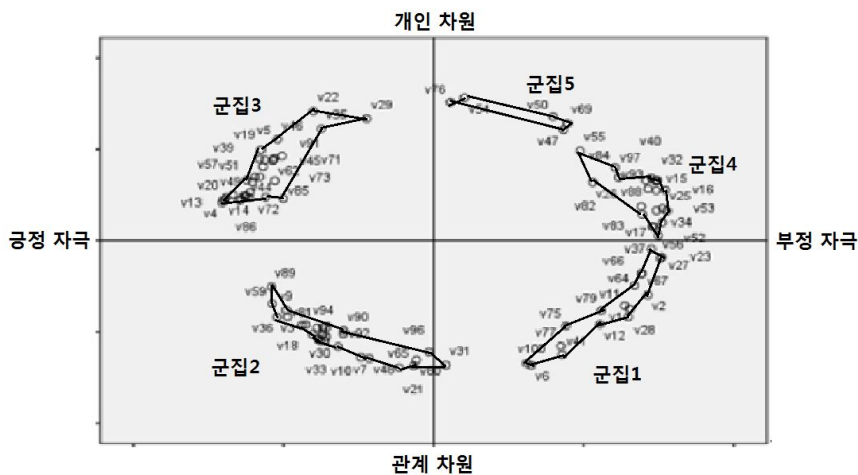


그림2.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학사경고극복요인 개념도

<표 4> 여자대학생들이 지각한 학사경고극복요인 군집과 핵심문장

군집1: 내·외부 자극으로 인한 동기유발 - 중요도 평균 '3.42'		
문항	문장	중요도
6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4.50
23	남들에 비해 내가 늦었고 뒤처지는 것같이 느껴져서 불안했다.	4.50
77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이런 아이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4.38
67	친한 동생들이 과에서 3~4등한 거 듣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다.	3.88
66	동기들에 비해서 나이가 많은데 학사경고 받아서 자괴감이 들었다.	3.63
28	선배로서 후배보다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다.	3.50
64	주변사람들이 저보고 실망하는 거 보면 더 괴로웠다.	3.38
1	남들의 기대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실망했다.	3.38
2	아빠 회사에서 주는 장학금을 성적 때문에 못 받았다.	3.38
11	미래가 불안해서 부모님 말씀대로 대학교는 졸업 해야겠다 생각했다.	3.13
100	남들도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3.13
12	가족의 무시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3.00
27	학점이 1.8인데 국장이 된 게 창피했다.	3.00
41	아직 독립을 못해서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기 어렵다.	3.00
79	사람들은대학,학점,스펙을보고평가한다고생각했다.	3.00
75	출발선이 남들보다 늦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생각한다.	2.63
37	부모님이 볼 때마다 잔소리해서 스트레스가 심했다.	2.75
군집2: 사회적 지지 자원 및 심리적 안정감 - 중요도 평균 '3.85'		
문항	문장	중요도
30	친한 친구가 나를 잡아주고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4.88
58	수업 듣는데 다행히 마음에 맞는 친구가 한두 명씩 있어서 좋았다.	4.88
95	가족이 날 믿고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면서 의지가 생겼다.	4.63
81	내가 이해받고 존중받는다느 느낌을 받고 마음이 편안해졌다.	4.25
10	같이 다니는 언니가 열심히 하는 언니라서 자극을 받았다.	4.25
33	오늘 뭐 배웠는지 물어봐주고 사소하게 관심주셔서 고맙웠다.	4.13

61	내가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감과 부담감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다.	4.13
65	남들이 나에게 갖는 기대에 충족시켜주고 싶었다.	4.13
74	내 노력을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생겼다.	4.13
18	이기고 싶은 애가 생겼다.	4.00
90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었다.	4.00
92	내 또래의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았던 거 같다.	4.00
94	동생이 정신적으로 지지해주고 심적으로 많이 위안이 되어주었다.	4.00
90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었다.	4.00
92	내 또래의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았던 거 같다.	4.00
94	동생이 정신적으로 지지해주고 심적으로 많이 위안이 되어주었다.	4.00
9	도서관에 일부러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았다.	3.88
80	장녀라 부모님의 기대를 많이 받았고,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다.	3.88
59	상담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위로받고 심리적 안정감이 생겼다.	3.88
96	빨리 취업해서 부모님께 금전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	3.75
98	롤모델을 보면서 많이 자극받았다.	3.75
3	동아리에서 국장이라는 책임을 맡고 남들보다 잘하고 싶었다.	3.63
21	남들에게 좀 떳떳하게 보이고 싶었다.	3.63
48	부모님이 저에 대한 기대가 커서 충족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3.50
89	휴학하고 복학하니까 좀 심리적으로나 마음이 좀 쉼차아졌다.	3.25
31	친구들도 학교에 다 다니고 나 역시 당장 일하기는 싫었다.	2.88
36	고학년이 되면서 학과행사가 필참이 아니라 학교 다니는 게 편해졌다.	2.50

군집3: 성취경험 및 자기관리행동 - 중요도 평균 '3.44'

문항	문장	중요도
68	목표가 생겼다.	4.50
13	지각은 하더라도 수업은 안 빠지려고 노력했다.	4.00
45	전공을 살려서 직업을 가지고 싶었다.	3.88
19	간간한 교수님 수업에서 A를 받아서 성취감이 생겼다.	3.75
39	할 수 있다는 경험을 한 번 하니까 자신감이 생겼다.	3.75
44	내 전공이니까 잘하고는 싶었다.	3.75
57	관심 있는 수업을 들으니까 수업이 재밌었다.	3.75

60	버킷리스트 적으면서 대학생활동안 내가 해야 되는 목표를 정했다.	3.75
91	우울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3.75
63	자기분석을 통해서 괴로웠던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3.63
49	다이어트 등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었다.	3.50
62	현재 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3.50
20	전공 교수님 스타일을 미리 파악했다.	3.50
22	스스로 전에도 했는데 지금이라고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3.50
71	한다면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다.	3.50
87	강의를 집중해서 듣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3.50
4	학사경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계기를 만들었다.	3.38
38	좋아하는 수업을 들었다.	3.38
46	도망치고 싶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힘을 주는 자기대화를 시도했다.	3.38
85	좀 더 좋은 조건을 갖춘 직장에 들어가고 싶었다.	3.38
24	복수전공을 하고 싶었다.	3.25
29	위축된 나를 이제는 올리고 싶었다.	3.13
35	휴학하고 진로부터 시작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3.00
70	마인드맵을 그려서 진로를 찾았다.	3.00
73	공부를 배울수록 재미있었다.	3.00
99	나만의 공부 방법을 찾았다.	3.00
86	강의 끝나고 바로 도서관에 가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2.88
5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려고 노력했다.	2.75
72	배우고 싶고 남들 못지않게 경험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	2.75
14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안하든 도서관에서 저녁 8~9시까지 있었다.	2.50

군집4: 미래에 대한 불안감 - 중요도 평균 '3.43'

문항	문장	중요도
43	취업도 못할 거 같아서 불안했다.	4.25
52	성적표를 엄마가 보고 실망한 거 보면서 너무 슬펐다.	4.25
78	무시당할거같은느낌에진짜자존심이많이상했다.	4.13
26	부모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컸다.	4.00
25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도 안 되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타격이 컸다.	3.88
42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3.63
53	내 자신이 수치스러웠다.	3.63

88	학년이 올라가면서 취업이 걱정되었다.	3.63
56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컸다.	3.50
82	시험 끝나고도 마음이 후련하지 않았다.	3.38
97	성적이 취업할 때 방해 요소가 많이 된다고 느꼈다.	3.38
15	모르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컸다.	3.25
34	내가 어리석고 한심하게 느껴졌다.	3.25
17	동아리 선배들로부터 취업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걱정되었다.	3.25
84	진로가 확실하지 않아서 이왕이면 더 좋은 점수를 받아야 했다.	3.13
93	재입학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막막했다.	3.13
83	놀면서도 죄책감이 들고 하니까 제대로 못 놀았다.	3.00
32	선불리 교양지식 없이 사회에 뛰어들기가 겁났다.	2.75
16	학사경고장이 경고의 의미로 다가왔다.	2.75
40	딱히 지금 별로 하고 싶은 것도 없다.	2.38
군집5: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후회와 깨달음 - 중요도 평균 '3.23'		
문항	문장	중요도
55	복수 전공하려는데 그 학과의 학점기준에 못 미쳤다.	3.88
50	공부를 안해서 열등감이 생겼다는 걸 알았다.	3.38
54	학교를 늦게 온 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3.25
69	취업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게 많다고 생각했다.	3.25
47	대학을 다니면서 돈이나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게 싫었다.	3.00
76	내가 선택해서 와놓고 못하는 게 모순이라고 생각했다.	2.63

B. 학사경고를 경험한 대학생이 인식하는 학사경고극복요인의 중요도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이 인식하는 학사경고극복요인의 중요도를 평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1차 연구를 통해 생성된 100의 진술문을 5점 리커트 척도(1점: 매우

중요하지 않다, 2점: 중요하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중요하다, 5점: 매우 중요하다)를 이용하여 평정하였다.

<표 5> 남자 대학생이 인식하는 학사경고극복요인의 중요도

군집명		중요도
군집 1	외부자극으로 인한 동기유발	3.70
군집 5	목표 수립 및 실행 의지 및 책임감	3.69
군집 3	능동적 자기관리 행동	3.46
군집 2	미래에 대한 불안 및 현실 인식	3.43
군집 4	사회적 지지자원 활용	3.17

남자 대학생이 경험하는 학사경고극복요인의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먼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인 군집은 5개의 군집 중 ‘군집1: 외부자극으로 인한 동기유발’ 이 평균 3.70으로 가장 중요한 군집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군집5: 기대충족을 위한 역할 및 책임감’ 이 평균 3.69로 높았던 반면 ‘군집4:사회적 지지자원 활용’ 이 평균 3.17로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인 진술문은 ‘성인으로써 그 결과에 대해서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는 게 무서웠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M=4.17),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인 진술문은 ‘내가 어떤 성향인지 검사를 통해 파악했다’ (M=2.28)로 나타났다.

남자 대학생이 경험하는 학사경고극복요인 중 ‘군집1: 외부자극으로 인한 동기유발 (M=3.70)’, ‘군집5: 목표 수립 및 실행 의지 및 책임감(M=3.69)’ 이 타 군집에 비해 높은 중요도를 보임으로서 남자 대학생에게 있어서 타인과의 비교 및 이상적 자기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학사경고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됨을 이해할 수 있다.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인 ‘군집4:사회적 지지자원 활용(M=3.17)’ 은 남자 대학생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지자원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이 학사경고 극복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6> 여자 대학생이 인식하는 학사경고극복요인의 중요도

군집명		중요도
군집 2	사회적 지지 자원 및 심리적 안정감	3.90
군집 3	성취경험 및 자기관리 행동	3.44
군집 4	미래에 대한 불안감	3.43
군집 1	내·외부 자극으로 인한 동기유발	3.42
군집 5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후회와 깨달음	3.23

여자 대학생이 경험하는 학사경고극복요인의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인 군집은 5개의 군집 중 ‘군집2: 사회적 지지자원 및 심리적 안정감’ 이 평균 3.85로 가장 중요한 군집으로 나타났고 ‘군집5: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후회와 깨달음’ 이 평균 3.23로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인 진술문은 ‘친한 친구가 나를 잡아주고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수업 듣는데 마음에 맞는 친구가 한 두명씩 있어서 좋았다’ (M=4.88),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인 진술문은 ‘공부가 안되어도 도서관에서 저녁 8~9시까지 있었다’ (M=2.50)로 나타났다.

여자 대학생이 경험하는 학사경고극복요인 중 ‘군집2: 사회적 지지자원 및 심리적 안정감(M=3.85)’ 이 타 군집에 비해 높은 중요도를 보임으로서 여자 대학생에게 있어서 주변의 지지자원과 심리적 안정감 획득이 학사경고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됨을 이해할 수 있다.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인 ‘군집5: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후회와 깨달음(M=3.23)’ 은 여자 대학생에게 관계적 차원에 비해 개인내적 차원에서의 자극이 학사경고 극복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V. 논의

본 연구에서는 개념도 방법을 활용하여 학사경고경험이 있는 남녀 대학생 각각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지하는 학사경고극복에 도움이 된 요인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사경고극복경험이 있는 남, 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학사경고를 극복하는데 수반되는 내적, 외적 경험을 확인하였고,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성별로 군집화된 개념도 및 중요도 평정을 통해 학사경고극복요인의 차별적 특징들을 확인하였다.

학사경고극복요인에 대한 성별 개념적 구조를 형성하는 축을 비교해보면, 남성은 개인적 차원과 관계적 차원을 중심으로 학사경고 극복 수준에 따라 인지적, 행동적 차원으로 군집이 분류되고, 여성은 개인적 차원과 관계적 차원에서 긍정자극의 경험인지, 부정자극의 경험인지에 따라 군집화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사경고자의 학업 및 학사경고극복요인의 특징과 남녀 성별에 따른 차별적 특성에 대해 보다 자세히 논의한 바는 아래의 내용과 같다.

첫째, 남자 학사경고자의 극복요인에 대한 주요 결론을 살펴보면 남자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학사경고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군집1: 외부자극으로 인한 동기유발’이 평균 3.70으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었고 그다음으로 ‘군집5: 목표수립 및 실행의지 및 책임감’이 평균 3.69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남자 대학생에게 있어서 타인과의 비교 및 이상적 자기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학사경고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됨을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박혜진, 한영석, 김명소, 2013)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과 달리 ‘교수신뢰’, ‘경제적 어려움’이 의미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이는 본 연구결과와 보여주듯 남자 대학생의 기대 충족을 위한 역할 및 책임감이 학사경고극복요인의 중요도가 높게 나왔다는 점과 일치한다. 남성들은 사회화 과정에서 강인하고 경쟁적이어야 한다는 등 내면화된 성역할에 적합한 이상적 자아를 형성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Pleck, 1995). 특히 남성들의 경우 성역할 사회화 과정을 통해 내면화된 이상적 남성성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결과(O'Neil, 1990; 최희철, 김병석 & 김지

현, 2004)는 본 연구에서도 보여지 듯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경쟁욕구와 사회 및 가정에서 기대하는 이상적 자기모습에 대한 목표 수립과 책임감을 학사경고극복에 중요한 요인으로 지각한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남자대학생들이 직업 선택에 있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경쟁하는 경쟁 지향적 특성은 남자 대학생의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박관성, 2008)도 보고되었으나 동시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쟁 지향적 특성이 남자 대학생들이 낮은 학업성취를 극복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보호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확인한 남자대학생의 개념도는 참여자들의 주관적 경험의 인식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학사경고 극복 경험에 대한 현실적인 요인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사경고자 상담 장면에서 남성의 사회적 발달 경험을 고려한 적절한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여자 대학생의 학사경고 극복요인에 대한 주요 결론을 살펴보면 ‘외부 자극으로 인한 동기유발’, ‘사회적 지지자원 및 심리적 안정감’, ‘성취경험 및 자기관리 행동’,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후회와 깨달음’의 다섯 개의 군집으로 도식화되었다. 이는 주영아(2012)의 연구인 학사경고여대생의 학업지속 요인을 외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와, 개인 내적요인인 삶에 대한 책임감 수용, 미래에 대한 심리적 불안 및 현실인식 제고, 그리고 대학수업방식에의 적응 등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여자 대학생에게 학사경고를 벗어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요인으로는 ‘군집2: 사회적 지지자원 및 심리적 안정감’이 평균 3.85로 가장 중요한 군집으로 나타났고 ‘군집5: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후회와 깨달음’이 평균 3.23로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여자 대학생이 경험하는 학사경고극복요인 중 ‘군집2: 사회적 지지자원 및 심리적 안정감(M=3.85)’이 타 군집에 비해 높은 중요도를 보임으로서 여자 대학생에게 있어서 주변의 지지자원과 심리적 안정감 획득이 학사경고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됨을 이해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김교현, 전경구, 1993; 오명자, 김병욱, 김미례, 2008; 전영자, 김세진, 1999; Billings & Moose, 1981)에 따르면 여자의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 중심적 혹은 문제 회피적 대처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며 이처럼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되는 부정적 정서경험을 피하기 위해 스트레스와 직접관련이 없거나 정서적 안정을 주는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해결중

심 대처전략보다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더 효과적이다(Compas, 1987). 또한 대처전략의 하위요인의 경우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전략과 문제해결중심 대처전략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여학생이 더 많은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정동화(2009), 조현준과 이근배(2006), Hample과 Petermann(2006)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Cohen & Hoberman(1983)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이 그가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으로, 사회적 지지를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그리고 자존감 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성(性)은 사회적 지지를 형성하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들 중의 하나로서 본 연구에서 결과에서도 남녀의 사회적 지지 요인의 차이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주변 친구들로부터 점수 따기 좋은 수업을 추천받았다’, ‘나를 인정해주는 느낌이 들었다.’ 등 사회적 지지자원의 활용이 정보적 지지와 자존감 지지에 가까웠고, 여성의 경우는 ‘동생이 심적으로 많이 위안이 되어주었다.’, ‘친한 친구가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등 정서적 지지로 인한 요인이 컸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인 ‘군집5: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후회와 깨달음(M=3.23)’은 여자 대학생에게 관계적 차원에 비해 개인내적 차원에서의 자극이 학사경고 극복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선행연구(유창민, 강상경, 김성용, 2014)에서 여자청소년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 소극적이고 사회적으로 내재화되어 과잉 통제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불안, 우울, 사회적 위축 등의 증상을 더 많이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 결과에서 여자 대학생의 학사경고 극복 요인에 사회적 지지기반을 통한 정서적 안정감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과 일치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대학에서는 학사경고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특히 여자학사경고자 집단에게는 기초학력증진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보다 개인, 정서 적응을 위한 학생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셋째, 학사경고극복요인은 성별에 따라 공통적인 측면과 극복 요인을 인식하는 중요도에 따라 서로 다른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남녀 모두 외부자극으로 인한 동기 유발, 사회적 지지자원의 획득, 자기관리 행동 등의 요인으로 학사경고를 극복하였다는 점에서 성별에 따른 극복요인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군집1: 외부자극으로 인한 동기유발’ 이 가장 높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욕구와 사회적 기대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학사경고 극복요인 중 높은 중요도를 차지하였다. 이는 남성에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학사경고 극복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인임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능동적 자기관리 행동으로 사회적 지지자원을 도구적으로 활용하여 학사경고를 극복하고자 했다. 이에 반해 여성의 경우 ‘군집2: 사회적 지지자원 및 심리적 안정감’ 이 학사경고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학업관리의 어려움에 심리적 요인이 중요하게 부각되며 특히 여성의 관계적 경험이 목적적 차원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관리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에서 차이가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대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계획 및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학생의 자기조절학습은 학습전략과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유형을 분류 할 수 있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 살펴보면 학습전략에서는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생의 인지, 동기, 행동전략에서 큰 차이를 볼 수 없었다. 그러나 학습자 특성에서는 남자 대학생의 경우 동기적 특성이 여자대학생의 경우 정서적 특성이 학습에 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남자 대학생의 경우 ‘나는 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다.’, ‘지금은 학업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공이 재밌었다.’ 등 자신감과 가치인식, 그리고 내재적 동기를 측정하는 학습흥미 등을 포함하는 동기적 특성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여자 대학생의 학사경고극복요인들을 살펴보면, ‘좋아하는 수업을 들었다.’, ‘할 수 있다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겼다.’ 와 같이 학습을 하면서 지각하는 긍정적 정서 상태와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컸다.’,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막막했다.’ 등 학습을 하면서 느끼는 짜증, 좌절감, 압박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포함하는 정서적 특성이 학사경고를 벗어나는데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김미경 외, 2012)에서 성별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및 관련요인의 차이를 본 결과 여자 청소년은 학업스트레스, 우울 및 불안, 부모 및 친구와의 애착요인이, 남자 청소년은 자아통제와 자기신뢰감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것과 같은 맥락이며 이와 같은 결과는 다양한 사회 환경적 요인들이 남녀에게 다른 가치의 발달을 증진시키는 경향이 있

으며, 이것은 여자청소년에게는 관계지향적인 모습을, 남자 청소년에게는 성취지향적인 경향을 더 많이 보여준다는 연구들(Block & Robins, 1993; 이은주, 정익중, 2012, 2012에서 재인용)과 일치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가 가지는 이론적, 실제적 측면에서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남녀 학사경고경험이 있는 학생으로부터 질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양적인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개념도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참여자 시각에 근거한 자료를 추출할 수 있었고, 추출된 요인들을 실제로 남녀 학사경고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얻을 수 있어서 그들의 학사경고 극복 요인을 이해하는 데 보다 타당한 기초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참여자들이 학사경고극복요인에 대해 내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개념적 구조들을 통해서 남녀 대학생의 학사경고극복요인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었다.

둘째, 개념도 방법을 통해서 탐색된 본 연구 결과들은 추후에 대학 내 학사경고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각 범주에서 진술문의 중요정도를 이해함으로써 프로그램 대상자들에게 보다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남녀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요구조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극복요인결과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은 성과 면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녀의 학사극복요인의 차이를 반영한 프로그램의 개입은 성별에 따른 독특한 발달 및 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 개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학사경고 경험이 있고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학생들을 선정하여 성별에 따른 학사경고극복요인을 알아보려고 했다. 연구자들이 각 성별에 해당하는 연구 참가자를 면담하고 진술문에서 핵심 문장을 선정할 때, 실제 연구 참가자들이 의도한 의미에서 벗어난 문장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개념도 연구 과정 자체의 한계로서(최윤정, 김계현, 2007; Kane & Trochim, 2007), 연구자들이 추출한 핵심 문장을 연구 참가자나 다른 전문성이 보장된 연구자들에게 진술문의 맥락 하에서 올바르게 선정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여러 차례의 다각적 검토 과정을 통해 타당성 확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그 내용은 연구 방법에 기술한 바와 같다.

다음으로 핵심 문장을 추출한 후, 연구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속한 성별집단에서 선별된 핵심 문장들을 동일한 내용끼리 분류하는 과정에서 참가자들에 따라 군집화 기준이 상이할 수 있다. 이는 앞선 내용과 마찬가지로 방법론적 한계로 볼 수 있으며, 연구 참가자들의 비전문성 뿐만 아니라, 각각의 성별을 대표하는 7~8명의 서로 다른 개인이 스스로 기준을 세움으로써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연구 참가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지방 소재 4년제 사립대학교의 학사경고경험이 있는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학사경고극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으나 한 개 학교만을 선정함으로써 전체 학사경고극복경험이 있는 남녀 대상의 표본을 대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발견된 요인들이 다른 지역 소재 대학교의 대학생들에게도 발견될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표본의 제한은 타당성 문제를 비롯하여 연구 결과 해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연구대상의 특성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므로 일반화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 및 전공의 충분한 사례를 확보한 연구 대상 선정이 필요하다.

VI. 참고 문헌

- 강순화, 이은경, 양은미 (2000). 학업우수 및 학업부진 학생의 학업실태 분석을 통한 대학에서의 학업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221-242.
- 김나미, 김신섭 (2013). 대학생 생활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2), 1125-1144.
- 김나미, 김효원, 박완성 (2014). 학사경고 대학생을 위한 회복탄력성 프로그램과 동료 멘토링의 효과. 열린교육연구, 22(1), 391-412.
- 김명찬 (2013). 학업실패를 경험한 서울대학교 학생의 적응과정 분석,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재환, 이수원, 장성수 (1986). 대학에서의 학업성취 요인에 관한 분석: 학사징계학생과 우수학생의 특성비교. 대학생생활연구, 4(5), 5-65.
- 배상확 (2014). 학습부진 대학생의 실태 및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강원대학교 대학원.
- 신성만, 김정훈 (2012). 대학생 학사경고자들을 위한 동기강화 집단상담 프로그램. 한동대학교 상담센터.
- 이자영, 최웅용 (2012).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을매개로 하여. 상담학연구, 13(3), 1481-1499.
- 이종연, 김복미, 장은주 (2013). 학사경고자 대학생을 위한 자기탐색 프로그램 개발. 상담학 연구, 14(1), 359-384.
- 장애경, 양지웅 (2013). 대학생의 학사경고 경험과 극복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상담학 연구, 14(2), 995-1013.
- 조경원, 강순화, 이은경, 양난미 (2000). 학사경고생의 실태와 학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학생생활연구(이화여자대학교), 34, 51-97.
- 주영아, 김영혜, 원수경 (2012). 학사경고 여대생의 학업성취 실패 및 지속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포커스 인터뷰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4), 47-69.

- 한덕웅, 이경성 (2000). 대학에서 성적우수 학생과 학사경고 학생의 특성. 학생지도연구. 12(1), 33-51.
- 황태향 (2009).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차이. 아시아교육연구. 7(3), 187-203.
- 손요한, 김인규 (2013). 개념도 방법론을 활용한 대학신입생의 상담요구 분석. 사회과학논총.
- 허보연, 김봉환 (2012). 개념도 방법을 통한 여자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3), 621-639
- Sage, T. L. (2010). Academic Probation: How students navigate and make sense of their experienc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Wisconsin.
- Hsieh, P., Sullivan, J. R., & Guerra, N. S. (2007) A close look at college students: Self-efficacy and goal orientation. Journal of Adanced Academics, 18(3), 454-476.
- Fletcher, J. M. & Tokmouline, M. (2010). The effects of academic probation on college success: Lending students a hand or kicking them while they are down?. Working paper of THEOP(Texas Higher Education Opportunity) project of princeton University, 1-32.
- Gol, A. R., & Cook, S. W. (2004). Exploring the underlying dimensions of coping: A concept mapping approac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 155-171.
- Kane, M. & Trochim, W. M. K. (2007).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California: Sage.
- Goodyear, R. K., Tracey, T. J. G., Claiborn, C. D., Lichtenberg, J. W., & Wampold, B. E. (2005). Ideographic concept mapping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conceptual overview, methodology, and an illustr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236-242.

- Bachelor, A. (1991) Comparison and relationship to outcome of diverse dimensions of the helping alliance as seen by client and therapist.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28(4), 534–539.
- Elliott, R, & James, E. (1989). Varieties of mood on the structure of the structure of the self–concept. *Cognition and Emotion*, 11(4), 351–372.
- Paulson, B. L., & Worth, M. (2002). Counseling for suicide: Client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and Development*, 80, 86–93.
- Paulson, B. L. Truscott, K., & Stuart, J. (1999). Client's perceptions of helpful experiences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 317–324

<부록1>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제목	학사경고 극복경험에 대한 개념도 연구		
	성명	소속	연락처
책임연구자	송수진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석사과정	010-3177-2837
지도교수	권해수	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062-230-6095

※ 만일 본 연구에 대한 문의 및 위험이 발생할 경우, 상기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바쁜 와중에 저의 연구에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학사경고를 극복하는 요인을 탐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자는 참여자와 최대 3회, 약 50분간 인터뷰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 동안 학사경고를 극복했던 경험과 관련된 질문을 할 것이며, 그 내용은 녹음될 것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오로지 연구에만 이용되고 비밀이 보장될 것이며, 연구가 끝나면 녹음된 내용은 파기될 것입니다.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읽고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나 _____는(은) 이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2. 나는 연구 참여자의 사생활 보호에 위협을 주지 않을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3. 나는 인터뷰에 응할 것과 인터뷰를 녹음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또한 연구가 끝난 뒤에 녹음 파일이 지워질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물이 발행되더라도 나의 이름이 연구에 관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4. 나는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특별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였습니다.
5. 나는 내가 원하는 질문이 무엇이든지 질문할 기회가 있고, 모든 질문에 만족스러운 정도로 답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앞으로 학사경고자에게 더욱 효과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전공

송 수 진

날짜

참여자 _____ 서명

<부록2>

남자 대학생의 학사경고극복요인 중요도 평정 척도

다음은 남자 대학생 학사경고극복요인 연구의 1차 인터뷰를 통해 정리한 진술문 목록입니다.
 각 진술문을 읽고 "이건 정말 중요해" "이건 꼭 극복요인이야" 라는 기준에 근거해 평정해주세요.

<인적 사항>

1. 성별 ? 남자 여자 2. 연령 ? _____ 세
3. 단과 대학 ? _____ 대학

NO	학사경고극복요인 문항	중요도				
		매우중요하지않다	중요하지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1	주변의 기대에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1	2	3	4	5
2	제가 집안에서 다른 형제들에 비해 이탈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1	2	3	4	5
3	막상 학교를 안다니면 뭘 해야 할지 막막했다.	1	2	3	4	5
4	일찍 못나갈 거 아니까 시간표를 오후로 조정했다.	1	2	3	4	5
5	1번 더 성적경고 받으면 짤린다는 위기감이 컸다.	1	2	3	4	5
6	친척들이 나한테 내리는 평가로 인해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았다.	1	2	3	4	5
7	부모님이 불쌍하지도 않나 하는 잔소리를 듣기 싫었다.	1	2	3	4	5
8	동기들이 앞서서 내가 멋져 보이는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 부러웠다.	1	2	3	4	5
9	교수님이 관심을 주고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1	2	3	4	5
10	교수님을 보면 멋지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1	2	3	4	5
11	교양에서 학점을 얻으려고 했고 교양 족보 같은 거 다 얻어서 했다.	1	2	3	4	5
12	전공이 나를 재밌었다.	1	2	3	4	5
13	좀 더 많이 알고 싶고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다.	1	2	3	4	5
14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 나를 보면 짜증이 났다.	1	2	3	4	5
15	나를 관리해주는 사람이 생겼다.	1	2	3	4	5
16	집안의 가장으로써 역할을 해야 했다.	1	2	3	4	5
17	수업시간에 집중하면서 수업이 재밌어졌다.	1	2	3	4	5
18	목표가 다시 생겼다.	1	2	3	4	5
19	불안이나 초조함이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1	2	3	4	5
20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1	2	3	4	5
21	내가 생각하기에 가능성이 큰 것부터 공부하는 게 좋았다.	1	2	3	4	5
22	남들이 무시하는 직업을 갖고 싶지 않았다.	1	2	3	4	5
23	뭐가 나한테 좋을까 찾아보고 싶어서 다양하게 해봤다.	1	2	3	4	5
24	부모님께서 역장이 무너지신 모습을 보았다.	1	2	3	4	5
25	주변에서 대학졸업장은 있어야 한다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1	2	3	4	5
26	알바를 하면서 이 일 저 일 하다 보니 돈의 소중함을 느꼈다.	1	2	3	4	5

27	시험 볼 때 아무것도 모르는 제 자신이 한심했다.	1	2	3	4	5
28	내가 뭐하고 살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1	2	3	4	5
29	제 스스로 떳떳하지 않게 느껴졌다.	1	2	3	4	5
30	부모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다.	1	2	3	4	5
31	부모님과 자주 대화를 하였다.	1	2	3	4	5
32	교회를 다니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다.	1	2	3	4	5
33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았다.	1	2	3	4	5
34	학생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1	2	3	4	5
35	수도권 대학 다니는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한심했다.	1	2	3	4	5
36	지금은 내 학업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	2	3	4	5
37	알바를 하면서 남의 돈 받고 일하는 게 정말 어렵구나 생각했다.	1	2	3	4	5
38	전공을 살려서 관련회사에 취업해도 좋겠다고 생각이 바뀌었다.	1	2	3	4	5
39	대학교 졸업은 최종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라고 생각했다.	1	2	3	4	5
40	수업시간에 빠질까 하는 충동이 생기기도 했지만 꾸역꾸역 앉아있었다.	1	2	3	4	5
41	학과에서 행사하는 것도 한번 씩 참여했다.	1	2	3	4	5
42	수업시간에 제일 앞자리에 앉았다.	1	2	3	4	5
43	놀면서도 불편했다.	1	2	3	4	5
44	대외활동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신선한 자극을 많이 받았다.	1	2	3	4	5
45	목표는 한전이나 한수원인데 학점이 3.5정도는 된다.	1	2	3	4	5
46	어머니랑 아버지가 약해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1	2	3	4	5
NO	상담요구 문항	중요도				
		매우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47	열심히 다니니까 나 스스로 좀 뿌듯했다.	1	2	3	4	5
48	성취감이 더 크게 느껴졌다.	1	2	3	4	5
49	등록금 때문에 부모님에게 미안했다.	1	2	3	4	5
50	나이를 먹을수록 전공 살려서 취업할 생각에 불똥이 떨어졌다.	1	2	3	4	5
51	성적이 중간 이상은 하고 졸업해야지 나 스스로 만족할 거 같았다.	1	2	3	4	5
52	제 가치를 올려보고 싶었다.	1	2	3	4	5
53	미래, 진로, 취업 아직 다 확실한 게 없어서 불안했다.	1	2	3	4	5
54	학점 때문에 국가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1	2	3	4	5
55	ROTC(학군단)을 하는 것도 지원 자체가 어려웠다.	1	2	3	4	5
56	학점 때문에 제가 못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생겼다.	1	2	3	4	5
57	사촌이 반장학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1	2	3	4	5
58	제가 잘해서 전장학금을 받고 싶었다.	1	2	3	4	5
59	자격증도 알아보고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도 참여했다.	1	2	3	4	5
60	제 주변에 학사경고를 받은 애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창피했다.	1	2	3	4	5

61	나보다 못했던 친구가 대학에 와서 180도 변한 모습을 보았다.	1	2	3	4	5
62	고등학교때 보다 대학 와서 더 안 좋게 변한 모습을 보았다.	1	2	3	4	5
63	과거에 성적이 올랐을 때 굉장히 짜릿했던 경험이 있다.	1	2	3	4	5
64	같이 다니는 친구가 하는 것들 보고 자극을 받았다.	1	2	3	4	5
65	친한 친구가 많이 지지해줬다.	1	2	3	4	5
66	나에게 어땠는지 물어봐주는 게 나를 인정해주는 느낌이 들었다.	1	2	3	4	5
67	등록금이 너무 아까웠다.	1	2	3	4	5
68	책 읽다가 관심이 가는 직업이 생겼다.	1	2	3	4	5
69	주변에 놀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한심해 보였다.	1	2	3	4	5
70	학사경고를 탈출하지 못하면 실망시키는 거 같았다.	1	2	3	4	5
71	대학 들어와서 이젠 공부 못하네 하는 소리 듣는 게 자존심이 상했다.	1	2	3	4	5
72	스스로 잘하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보면서 불안했다.	1	2	3	4	5
73	남들과의 경쟁에서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경쟁에 밀렸다.	1	2	3	4	5
74	내가 어떤 성향인지 검사를 통해서 파악했던 게 좋았다.	1	2	3	4	5
75	아빠는 장남으로써 내가 잘 되어야 동생들이 잘된다는 말을 자주했다.	1	2	3	4	5
76	학교 사이트를 습관적으로 많이 확인했다.	1	2	3	4	5
77	롤 모델을 보고 많이 배웠다.	1	2	3	4	5
78	군대에서 다짐이 좀 생겼던 거 같다.	1	2	3	4	5
79	나는 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다.	1	2	3	4	5
80	공부에 방해되는 것들은 다 없애고 카톡도 다 지웠다.	1	2	3	4	5
81	남들이 학사경고 받았다고 하면 학교 안다녔구나 라고 보는 게 싫었다.	1	2	3	4	5
82	학사공지나 일반 공지를 자주 확인했다.	1	2	3	4	5
83	아버지가 장학금을 받으면 차를 사주겠다고 했다.	1	2	3	4	5
84	주변 친구들로부터 점수 따기 좋은 수업을 추천 받았다.	1	2	3	4	5
85	친구들이랑 밥도 같이 먹고 공강 시간도 같이 보냈다.	1	2	3	4	5
86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마음이 좀 더 편했다.	1	2	3	4	5
87	내 일에 집중하지 못 할 거 같아서 여자 친구도 안 사귀었다.	1	2	3	4	5
88	졸업하고 가고 싶은 기업이 생겼다.	1	2	3	4	5
89	강의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	2	3	4	5
90	안 좋게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되어야지 생각했다.	1	2	3	4	5
91	복수전공을 하고 싶었다.	1	2	3	4	5
92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고졸보다는 대학졸업자를 선호한다고 생각했다.	1	2	3	4	5
93	다양한 알바를 해봐도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이 들었다.	1	2	3	4	5
94	학과전공 살려서 과외 알바 했던 게 더 쉬웠구나 싶었다.	1	2	3	4	5
95	주변에 일 시작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각자 자기 갈길 찾는 모습을 보았다.	1	2	3	4	5
96	부모님께서 저를 믿고 지켜봐주셨다.	1	2	3	4	5
97	성인으로써 그 결과에 대해서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는 게 무서웠다.	1	2	3	4	5
98	졸업을 못하게 될까봐 불안했다.	1	2	3	4	5

99	공부 안한 나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게 싫었다.	1	2	3	4	5
100	나이가 들수록 책임감이 커졌다.	1	2	3	4	5

<부록3>

여자 대학생의 학사경고극복 요인 중요도 평정 척도

다음은 여자 대학생 학사경고극복요인 연구의 1차 인터뷰를 통해 정리한 진술문 목록입니다. 각 진술문을 읽고 “이건 정말 중요해” “이건 꼭 극복요인이야” 라는 기준에 근거해 평정해주세요.

<인적 사항>

1. 성별 ? 남자 여자 2. 연령 ? _____ 세
3. 단과 대학 ? _____ 대학

NO	학사경고극복요인 문항	중요도				
		매우중요하지않다	중요하지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1	남들의 기대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실망했다.	1	2	3	4	5
2	아빠 회사에서 주는 장학금을 성적 때문에 못 받았다.	1	2	3	4	5
3	동아리에서 국장이라는 책임을 맡고 남들보다 잘하고 싶었다.	1	2	3	4	5
4	학사경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계기를 만들었다.	1	2	3	4	5
5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려고 노력했다.	1	2	3	4	5
6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다.	1	2	3	4	5
7	의식적으로 친구들을 더 만들려고 노력했다.	1	2	3	4	5
8	우리 과 복수전공 하는 언니를 도와주려고 공부하기 시작했다.	1	2	3	4	5
9	도서관에 일부러 가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았다.	1	2	3	4	5
10	같이 다니는 언니가 열심히 하는 언니라서 자극을 받았다.	1	2	3	4	5
11	미래가 불안해서 부모님 말씀대로 대학교는 졸업해야겠다 생각했다.	1	2	3	4	5
12	가족의 무시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1	2	3	4	5
13	지각은 하더라도 수업은 안 빠지려고 노력했다.	1	2	3	4	5
14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안하든 도서관에서 저녁 8~9시까지 있었다.	1	2	3	4	5
15	모르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컸다.	1	2	3	4	5
16	학사경고장이 경고의 의미로 다가왔다.	1	2	3	4	5
17	동아리 선배들로부터 취업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걱정되었다.	1	2	3	4	5
18	이기고 싶은 애가 생겼다.	1	2	3	4	5
19	깐깐한 교수님 수업에서 A를 받아서 성취감이 생겼다.	1	2	3	4	5
20	전공 교수님 스타일을 미리 파악했다.	1	2	3	4	5
21	남들에게 좀 멋있게 보이고 싶었다.	1	2	3	4	5

22	스스로 전에도 했는데 지금이라고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1	2	3	4	5
23	남들에 비해 내가 늦었고 뒤쳐지는 것같이 느껴져서 불안했다.	1	2	3	4	5
24	복수전공을 하고 싶었다.	1	2	3	4	5
25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도 안 되고 하니 경제적 타격이 컸다.	1	2	3	4	5
26	부모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컸다.	1	2	3	4	5
27	학점이 1.8인데 국장이 된 게 창피했다.	1	2	3	4	5
28	선배로서 후배보다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다.	1	2	3	4	5
29	위촉된 나를 이제는 올리고 싶었다.	1	2	3	4	5
30	친한 친구가 나를 잡아주고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1	2	3	4	5
31	친구들도 학교에 다 다니고 나 역시 당장 일하기는 싫었다.	1	2	3	4	5
32	선불리 교양지식 없이 사회에 뛰어들기가 겁났다.	1	2	3	4	5
33	오늘 뭐 배웠는지 물어봐주고 사소하게 관심주셔서 고마웠다.	1	2	3	4	5
34	내가 어리석고 한심하게 느껴졌다.	1	2	3	4	5
35	휴학하고 진로부터 시작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었다.	1	2	3	4	5
36	고학년이 되면서 학과행사가 필참이 아니라 학교 다니는 게 편해졌다.	1	2	3	4	5
37	부모님이 볼 때마다 잔소리해서 스트레스가 심했다.	1	2	3	4	5
38	좋아하는 수업을 들었다.	1	2	3	4	5
39	할 수 있다는 경험을 한 번 하니 자신감이 생겼다.	1	2	3	4	5
40	딱히 지금 별로 하고 싶은 것도 없다.	1	2	3	4	5
41	아직 독립을 못해서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기 어렵다.	1	2	3	4	5
42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1	2	3	4	5
43	취업도 못할 거 같아서 불안했다.	1	2	3	4	5
44	내 전공이니까 잘하고는 싶었다.	1	2	3	4	5
45	전공을 살려서 직업을 가지고 싶다.	1	2	3	4	5
46	도망치고 싶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힘을 주는 자기대화를 시도했다.	1	2	3	4	5
NO	학사경고극복요인 문항	중요도				
		매우중요하지않다	중요하지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47	대학을 다니면서 돈이나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게 싫었다.	1	2	3	4	5
48	부모님이 저에 대한 기대가 커서 충족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1	2	3	4	5
49	다이어트 등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었다.	1	2	3	4	5
50	공부를 안해서 열등감이 생겼다는 걸 알았다.	1	2	3	4	5
51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았다.	1	2	3	4	5
52	성적표를 엄마가 보고 실망한 거 보면서 너무 슬펐다.	1	2	3	4	5
53	내 자신이 수치스러웠다.	1	2	3	4	5
54	학교를 늦게 온 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1	2	3	4	5
55	무역학과를 복수 전공하려는데 그 학과의 학점기준에 못 미쳤다.	1	2	3	4	5

56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컸다.	1	2	3	4	5
57	관심 있는 수업을 들으니깐 수업이 재밌었다.	1	2	3	4	5
58	수업 듣는데 다행히 마음에 맞는 친구가 한두명씩 있어서 좋았다.	1	2	3	4	5
59	상담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위로받고 심리적 안정감이 생겼다.	1	2	3	4	5
60	버킷리스트 적으면서 대학생활동안 내가 해야 되는 목표를 정했다.	1	2	3	4	5
61	내가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감과 부담감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다.	1	2	3	4	5
62	현재 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1	2	3	4	5
63	자기분석을 통해서 괴로웠던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1	2	3	4	5
64	주변사람들이 저보고 실망하는 거 보면 더 괴로웠다.	1	2	3	4	5
65	남들이 나에게 갖는 기대에 충족시켜주고 싶었다.	1	2	3	4	5
66	동기들에 비해서 나이가 많은데 학사경고 받아서 자괴감이 들었다.	1	2	3	4	5
67	친한 동생들이 과에서 3~4등한 거 듣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다.	1	2	3	4	5
68	목표가 생겼다.	1	2	3	4	5
69	취업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게 많다고 생각했다.	1	2	3	4	5
70	마인드맵을 그려서 진로를 찾았다.	1	2	3	4	5
71	한다면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다.	1	2	3	4	5
72	배우고 싶고 남들 못지않게 경험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	1	2	3	4	5
73	공부를 배울수록 재미있었다.	1	2	3	4	5
74	내 노력을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생겼다.	1	2	3	4	5
75	출발선이 남들보다 늦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생각한다.	1	2	3	4	5
76	내가 선택해서 와놓고 못하는 게 모순이라고 생각했다.	1	2	3	4	5
77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내가 이런 아이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1	2	3	4	5
78	무시당한 거 같은 느낌에 진짜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	1	2	3	4	5
79	사람들은 대학, 학점, 스펙을 보고 평가한다고 생각했다.	1	2	3	4	5
80	장녀라 부모님의 기대를 많이 받았고,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다.	1	2	3	4	5
81	내가 이해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마음이 편안해졌다.	1	2	3	4	5
82	시험 끝나고도 마음이 후련하지 않았다.	1	2	3	4	5
83	놀면서도 죄책감이 들고 하니까 제대로 못 놀았다.	1	2	3	4	5
84	진로가 확실하지 않아서 이왕이면 더 좋은 점수를 받아야 했다.	1	2	3	4	5
85	좀 더 좋은 조건을 갖춘 직장에 들어가고 싶었다.	1	2	3	4	5
86	강의 끝나고 바로 도서관에 가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1	2	3	4	5
87	강의를 집중해서 듣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	2	3	4	5
88	학년이 올라가면서 취업이 걱정되었다.	1	2	3	4	5
89	휴학하고 복학하니깐 좀 심리적으로나 마음이 좀 괜찮아 졌다.	1	2	3	4	5
90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었다.	1	2	3	4	5
91	우울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1	2	3	4	5
92	내 또래의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았던 거 같았다.	1	2	3	4	5
93	재입학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막막했다.	1	2	3	4	5
94	동생이 정신적으로 지지해주고 심적으로 많이 위안이 되어주었다.	1	2	3	4	5
95	가족이 날 믿고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면서 의지가 생겼다.	1	2	3	4	5
96	빨리 취업해서 부모님께 금전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	1	2	3	4	5

97	성적이 취업할 때 방해 요소가 많이 된다고 느꼈다.	1	2	3	4	5
98	롤모델을 보면서 많이 자극받았다.	1	2	3	4	5
99	나만의 공부 방법을 찾았다.	1	2	3	4	5
100	남들도 다 하니깐 나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1	2	3	4	5